

柔道



대한유도회
Korea Judo Association

Vol.127

judo.sports.or.kr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 대한유도회 회보 2021 봄호



특별 인터뷰

조용철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

포커스

새로운 마음으로 임기 시작하는
시도유도회 및
연맹 회장들의 포부

국내대회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제25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이슈

도쿄올림픽을 앞둔 대표선수들의 훈련현장

유도 지방화 시대(11)

부산광역시유도회

마니아 열전

여자 유도의 대모 서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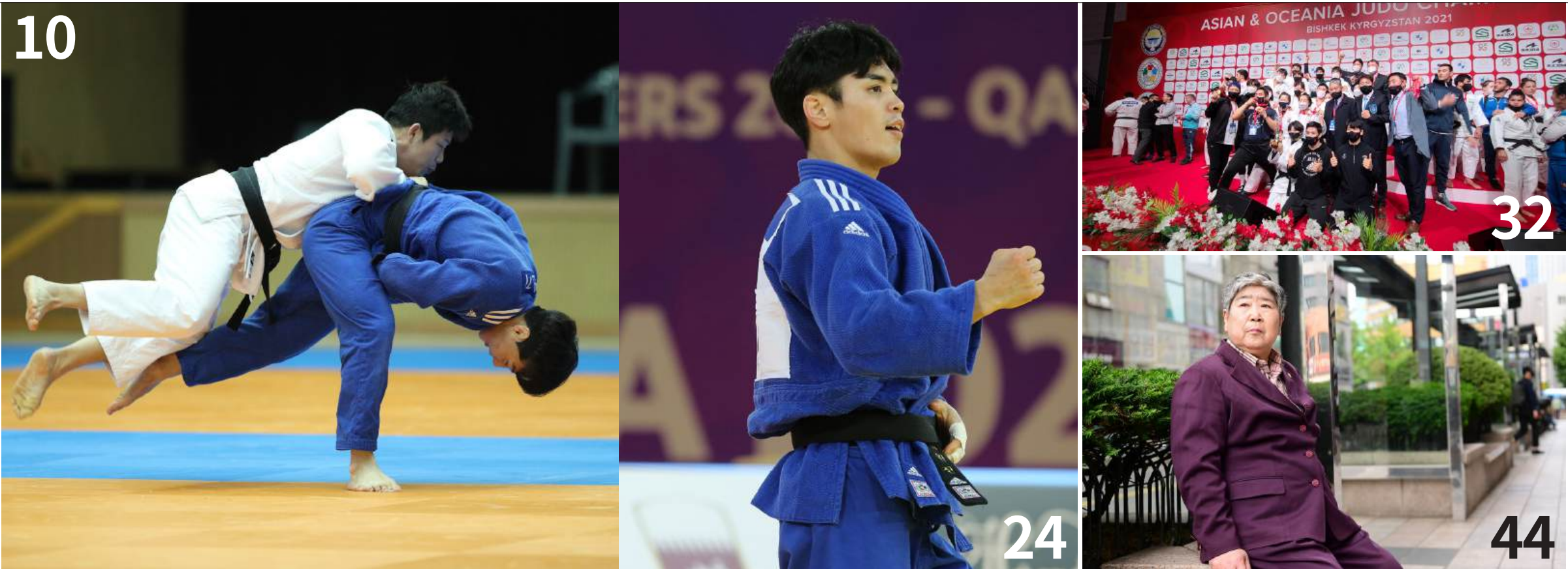


9 772586 125002
ISSN 2586-1255

124

CONTENTS

2021 SPRING
Korea Judo Association
Vol.127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 통권 127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02 특별 인터뷰
조용철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

06 포커스
새로운 마음으로 임기 시작하는
시도 유도회 및 연맹 회장들의 포부

10 국내대회
10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 평가전
18 제25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4 국제대회
24 2021 도하마스터스
28 2021 타쉬켄트 그랜드슬램
32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 선수권대회
34 2021 카잔 그랜드슬램

36 이슈
도쿄올림픽을 앞둔 대표선수들의 훈련현장

38 유도 지방화 시대(11)
38 인터뷰 - 부산광역시유도회 신득성 회장
40 학교 탐방 - 해동고등학교
42 유도관 탐방 - 김사부 유도관

44 마니아열전
여자 유도의 대모 서경애

46 임원소개
46 대한유도회 제38대 임원 소개
49 분과위원장 소개

50 유도 뉴스

52 유도 기록실

54 2021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대 대한유도회가 조용철 회장 체제로 전환한 뒤 한국 유도 전성기 재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철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철 회장은 1980년대 한국 유도를 대표했던 레전드 출신이다. 1984 LA올림픽, 1988 서울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198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행정가로 변신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유도연맹 사무총장을 지냈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유도회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앞으로 한국 유도를 이끌어 갈 조용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회장은 한국 유도를 이끄는 자리 책임감과 무게감이 생긴 조용철 회장

■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이 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유도를 통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협회의 수장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영광스럽습니다. 유도인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더욱 바빠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전 상임부회장 할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장직을 맡다 보니 책임감이 더 커졌죠. 유도 발전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전 충남유도회 회장과 대한유도회 상임부회장을 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무게감이 달라졌죠. 충남유도회 회장은 그

회합을 해야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 한 지역의 단체장이었어요. 그런데 대한유도회 회장은 한국 유도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 책임감과 중압감이 큰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체육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많이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어떻게 혼합할 수 있나를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도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유도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이나 주위 사람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다들 반겨줬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집사람이나 가족들도 좋아하고요. 내가 평생 해온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만하고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유도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선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저 역시 답답한데 이들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힘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임기를 맡고 난 후, 선수들의 성적이 좋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제38대 대한유도회 집행부를 꾸리는 과정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번 집행부의 핵심은 화합입니다. 여야 없이, 학교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 집행부를 꾸렸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 회장님께서 항상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서로 싸우고 화합을 하지 못하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화합을 해야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화합도 회장님께서 중점으로 두는 사항일 듯합니다.

요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많이 위축이 됐죠. 생활체육으로 유도를 접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활 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도쿄 그랜드슬램을 갈 수 있는 견학 기회를 줬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은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죠.

■ 엘리트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에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유도원하고 협의해 지도자나 학교에 지원금 혜택, 도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

“한국 유도
전성기 위해
다시 뛰자”

조용철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

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유도 동호회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도가 앞으로로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훈련만이 살길이다” 도쿄올림픽을 향한 쓴소리

❑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 유도의 올림픽 성적이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보니 이번 도쿄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듯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도 중주국인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텃세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텃세를 이겨내려면 우리는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죠. 지도자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나면 체력입니다. 경험과 기술 차이를 타파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체력 훈련을 많이 했기에 한국 유도가 예전에는 잘 나갔다고 봅니다. 1986 서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6개나 딸 수 있었던

이유도 체력 덕분이었죠.

❑ 한 때 침체기에 빠졌던 이유도 체력 훈련의 부족으로 보시나요.

맞습니다. 요즘 새벽 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유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선수들의 뛰어난 기술을 넘고 이겨내려면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새벽이고 야간이고 훈련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훈련만이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은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요. 체력이 안 되면 좋은 기술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헤비급 선수들도 경량급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똑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체격이 큼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빨라야 합니다. 총알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빠르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느리면 그건 총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기술 자체가 빨라야 하고, 그 기술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 체력 훈련 덕분일까요. 그래도 2021년 국제 대회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체력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죠. 예로 안창림 선수가 있어요. 안창림 선수가 일본에서는 성적을 못 냈어요.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했는데, 제가 그냥 태릉선수촌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태릉선수촌 가서 체력 훈련을 하더니 기량이 확 오르더라고요. 이전에는 기술만 있었는데 이제는 체력까지 되니까 엄청나죠. 일본에 있을 때는 입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최고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가 있을 듯합니다.

몇 명 있죠. 물론 그 선수들이 반드시 되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부담을 이겨내야죠. 메달권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은 김원진(60kg이하급), 안바울(66kg이하급), 안창림(73kg이하급), 조구함(100kg이하급), 김민중(100kg이상급) 등이 있어요. 그날의 컨디션과 여기서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를 해 가느냐 중요하죠. 여자는 52kg이하급, 57kg이하급이 괜찮아 보이고요.

❑ 김민중 선수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김민중은 세계선수권 우승 출신 선수들을 다 이겨냈을 정도로 대단해요. 대회 날,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한다면 메달 가능성이 있어요.

❑ 올림픽은 일반 국제 무대와 다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중압감이 다르죠. 국가에서 보는 스포트라이트도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소통하라’입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지도할 수 있어요. 실력적인 테크닉은 다음이에요. 선수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가려워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해요.



조용철 회장 약력

학력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유도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세종대학교 체육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경력

1984년~현재	용인대학교 교수
2016년 8월~2021년 1월	대한유도회 상임부회장
2013년 4월~현재	아시아유도연맹 교육보급위원장
2005년~2013년 4월	아시아유도연맹 사무총장
2005년~2016년	대한유도회 전무이사
2016년~2020년 11월	충남유도회 회장
2017년~2020년 12월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
2021년 2월~현재	대한체육회 이사

수상경력

1985년	대한민국 체육상 최우수상
2007년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 장려상
2015년 2월	유도 공인 8단 승단

유소년 선수들에게 던진 조언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 필요

❑ 대한민국 유도인에게 대한유도회 회장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유도인들의 저변 확대, 유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 대한유도회와 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한유도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 외교를 잘 해야죠. 2016 리우올림픽 같은 경우, 당시 체육계 비리가 많았어요. 힘든 상황에서 나갔죠. 결과도 좋지 못했구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우리 모든 유도인들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내야죠.

❑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잘 헤쳐 나갈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19만 종식되면 웃는 얼굴로 마주해 덕담 나누고 싶습니다.

❑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유도를 하길 바랍니다.

❑ 제38대 대한유도회의 키워드는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려올 때 유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경기인 출신답게 ‘유도를 사랑했고 한국 유

도 발전에 큰 기여를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회장님, 도쿄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단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과는 하늘이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했으면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멋진 유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38대 대한유도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유도가 세계적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로운 마음으로 임기 시작하는 시도유도회 및 연맹 회장들의 포부

전국 각 사·도 유도회 및 대한유도회 산하 연맹 회장들이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임기에 들어갔다. 사·도 유도회 및 연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시도유도회 및 연맹 회장들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인천시유도회는 인터뷰를 사양함에 따라 담지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도회 이천우 회장
“현장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

유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0대(통합 1대)에 이어 제11대(통합 2대) 서울특별시 유도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천우입니다. 먼저 부덕한 저에게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느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곧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유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선수 발굴 육성, 팀 창단을 위한 단계적 구축을 통한 한 단계 수준 높은 유도회로 비상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서울특별시유도회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렴하여 유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림픽 메달 리스트 출신으로서 한국 유도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훌륭한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유도회 신득성 회장
“소통, 배려, 화합, 혁신”

짧고 굵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유도회는 소통, 배려, 화합 더 나아가 혁신적인 부산유도를 건립하겠습니다. 부산만의 특징 있고 힘 있는 방식으로 부산유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유도인들 다 함께 정진합니다.



대구광역시 유도회 박민수 회장
“전용유도관 건립 추진하겠다”

지난 임기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생활체육 유도의 저변이 크게 넓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재임 기간에는 학교 유도 확대를 위해 유도 꿈나무인 초, 중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용 유도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을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용 유도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도회 이현진 회장
“한국 파이팅, 유도 파이팅”

유도 꿈나무 선수를 선발, 배출해 엘리트뿐만 아니라 동호인 유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체육관 지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대전에 전문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팀 창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유리한 대전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 대전 유도 발전에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유도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힘들고 지치겠지만 또 한 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한국 파이팅, 유도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광주광역시 유도회 염창곤 회장
“합을 통해 인화단결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연임과 함께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 유도회를 이끌게 된 염창곤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합을 통해 인화단결하겠습니다. 광주유도가 더 비상할 수 있도록 이 한 몸 받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유도회 박경석 회장
“초·중고 유도부 창단에 앞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울산광역시유도회 회장 박경석입니다. 저는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학교 팀 선수가 적어지면서 선수층이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항아리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팀이면 중학교는 4팀, 초등학교는 최소 6팀이 상이 되어야 연계 육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유도부 팀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팀 창단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 서정복 회장
“대한민국 유도 발전 위해 노력”

유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도회 회장 서정복입니다. 먼저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유도인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경기도 유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유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유도회 박승용 회장
“스포츠클럽 창단을 적극 추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유도회 회장 박승용입니다. 이번 임기 동안 학교 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창단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유도부가 있으나 중·고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사설 유도장이 없는 지역에 스포츠 클럽을 유치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유도인들의 숙원이죠. 강원도 유도회관을 건립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유도회관을 건립해 전지훈련 유치, 더 나아가 유소년 청소년·상비군·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상남도 유도회 윤병석 회장
“남자 대학팀 창단에 열정 쏟아”

안녕하십니까. 경남유도회 회장 윤병석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활성화에 힘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남자 대학팀 창단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청렴하고 거짓 없는 경남유도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상북도 유도회 엄득웅 회장
“경북 출신 광동환과 김지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먼저 제28대 경북유도회 회장에 이어 제29대 경북유도회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모든 유도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 유도 소속 선수 남자 90kg이하급 광동환(하이원), 여자 57kg이하급 김지수(경북유도회)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도 전용 경기장 설립에 힘쓰겠습니다.



전라남도 유도회 임종안 회장
“엘리트, 생활 체육 함께 발전하는 게 목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전남 유도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일선 유도장이 휴관하고,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유도 정신으로 잘 극복하고 모두가 웃으며 매트 위에서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전라북도 유도회 최동훈 회장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힘쓰겠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북유도회 통합 제2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된 최동훈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유도를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북 유도회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유도 발전을 위해 유도인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꿈나무 선수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도를 이끄는 전북유도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유도회 이재현 회장
“참된 유도정신을 마음속에 품겠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충남유도회를 이끌게 된 이재현입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충남유도회는 ‘참됨’입니다. ‘참된 유도정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을 충남 유도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충남 유도인들과 소통, 화합하겠습니다. 유도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유도회 최왕수 회장
“화합의 장 만들겠다”

모든 행사에 유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친화단결 도모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육성학교 창단과 사설도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도인구 저변 확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대한민국에 교통 중심지임을 활용해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화하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개최 활성화 및 전지훈련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청주유도회관과 남궁유도회관을 개방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및 생활체육 유도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강만순 회장
“세 가지 중점사항을 임기기간 모두 이루겠다”

올해는 통합 3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 부분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첫째, 학생부 엘리트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 주면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유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도자들과의 소통, 협력, 연대를 통해 유도인들의 사기를 높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유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 유단 자회가 활성화되어 선후배 간의 우의를 다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하얀 소의 해입니다. 신비하고 우직한 하얀 소처럼 뚝뚝뚝 제주 유도의 발전을 위하여 유도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주유도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초·중·고유도연맹 심완보 회장
“소통과 대화를 중요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초·중·고유도연맹 회장 심완보입니다. 한국초·중·고유도연맹은 시합 및 훈련 캠프 활성화를 통한 학생 선수(학교) 및 학생 개인 선수(사설)의 인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유도의 예법 교육을 통해 학생 선수 인성 교육 강화 사업에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분과별 소모임 활성화와 함께 소통과 대화를 중요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사항을 통해 연맹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국실업유도연맹 김태환 회장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실업유도연맹 회장 김태환입니다. 2021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남녀 14체급 가운데 13명의 실업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유도연맹 이대성 회장
“대학유도 발전과 활성화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유도연맹 회장 이대성입니다. 먼저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유도인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학 유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물샬틈없는 방역 속에 치러진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코로나 19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싹

강원도 유도의 중심지로 떠오른 양구는 지난 2019년 새로운 대회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와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유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었다. 비록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대회 개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마침내 강원도와 양구군 유도회는 2021년 5월 8일부터 17일까지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의 탄생을 알릴 수 있었다.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1년 공백 속에 2021년 첫 대회로 열린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의 성공 여부는 두말할 것 없이 방역이었다. 초등학교부터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대회를 준비하는 대한유도회 관계자와 강원도 그리고 양구군 유도회 인사들은 개막 하루 전부터 선수 대기 장소부터 출전자 입장, 경기장 내 소독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팀 관계자들의 코로나 PCR 검사를 의무화해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자의 대회 출전을 원천 봉쇄했다. 일부 팀에서는 굳이 PCR 검사까지 하면서 대회에 출전해야 하느냐는 불멘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불평 없이 검사를 마친 뒤 대회에 참가했다.

강원도, 양구군 유도회 역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대회장 입구에는 입장과 퇴장 동선을 따로 마련했고, 입구를 통과한 뒤에는 참가 순서에 따라 팀별로 PCR 검사 확인증과 함께 체온 체크, 출입자 신상을 기입한 후 경기장에 입장시켰다. 또한 체육관 내에서 선수들이 경기 순서를 기다리던 과거 모습과 달리 최소한의 인원만 경기장에서 대기시켰다.

최원 대한유도회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내 공간에 머무는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했는데, 각 팀과 선수들이 비교적 잘 따라와 준 것이 대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간간히 나온 응원소리가 옥에 티라 할 수 있지만 비교적 문제없이 대회를 무사히 마친 것 같다”라며 2021년 첫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량 저하?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남, 여 일반부 경기가 한창 열리던 9일과 10일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과거 대회에는 화끈한 기술과 더불어 이곳저곳에서 한판승이 연달아 연출되었지만 유난히 이번 대회에서는 정규 경기 시간이 끝나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오죽했으면 남자 일반부 81kg이하급 16강 전에서는 정규 경기 시간이 끝나고 무려 7분 14초의 연장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이런 경기들을 지켜보던 A 심판은 “이름 있는 선수들조차 훈련량이 많지 않은 모습이고, 다른 선수들도 기량이 좋아진 것 같지 않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 실업팀 감독은 “선수 보강을 위해 유심히 경기를 지켜봤지만 마땅히 스카우트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유도회 한 관계자는 선수들의 기량 저하는 코로나19 여파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2020년 초부터 실내에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 일부 팀과 선수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기술 훈련을 할 수 없었다고 한

다. 다양한 선수들과 도복 훈련을 해야 하지만 체육관 사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유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나마 개인별 웨이트 트레이닝과 산악 훈련 등으로 체력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게 팀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방 실업팀을 지도하고 있는 한 지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된 것만으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이나 대회 출전이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예전과 같이 훈련도 하고 대회도 출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며 희망 섞인 바람을 드러냈다.

김민중, 대선배 김성민 꺾었다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는 도쿄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최종평가전도 겸해 열렸다. 해당 체급은 남자 100kg이상급, 여자 78kg이하급, 여자 78kg이상급까지 세 체급이었다. 도쿄올림픽은 국제유도연맹(IJF) 올림픽 랭킹 기준 체급별 상위 18위에 들거나 대륙별 올림픽 랭킹 체급별 1위를 차지해야 출전할 수 있다.

남자 100kg이상급에서는 신예가 대선배를 제압했다. 사실 김민중과 김성민은 위기존을 모두 충족한다. 1개 국가1명의 선수출전 원칙에 따라 이날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김민중(용인대)은 한국 유도의 망형 김성민(KH필룩스)에게 승리하며 생애 첫 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다.

최종평가전은 3전 2선승제로 열렸다. 김민중과 김성민은 첫 번째 경기에서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골든스코어(연장전)에 들어섰다. 상대적으로 김성민보다 체력을 세이브한 김민중은 골든스코어 55초 만에 다리걸기를 시도하는 김성민에게



김민중

반격해 발목 받히기 공격 되치기 기술을 시도했다. 이는 적중했다. 김성민은 김민종의 역습에 당황하며 무너졌고, 결국 김민종은 절반을 획득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김민종이 웃었다. 정규 시간 종료 40여 초를 남기고 안뒤축걸기로 절반을 따낸 김민종은 남은 시간을 잘 버텨내며 승리했다. 김민종은 김성민을 상대로 90도 인사를 하며 선배에 대한 예우를 갖췄고, 김성민은 자신을 대신해 올림픽에 나서는 후배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응원했다. 유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김민종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다. 보

성고 3학년이던 2019년 세계선수권에 첫 출전해 강호들을 모두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하는 이변을 연출한 바 있다. 대한유도 회조용철 회장 역시 김민종의 메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김민종이 더 무서운 점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한계치를 정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도쿄올림픽을 마지막 올림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김성민. 2011년 세계선수권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4강,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활

약해왔다. 하지만 13살 어린 김민종에게 올림픽 티켓을 내줬다. 여자 78kg이하급에서는 윤현지(안산시청)가 라이벌 이정윤(광주철도도시공사)을 연파하고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윤현지는 사실 2016 리우올림픽 티켓을 확보하고도 그해 1월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바람에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그 아쉬움을 5년 만에 풀게 됐다.

윤현지는 첫 경기서 이정윤과 골든스코어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다. 윤현지는 팽팽한 접전 끝에 이정윤에게 허리채기 한판승을 거두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윤현지는 두 번째 경기에서 완전히 이정윤을 제압했다. 경기 내내 자신감 있는 공격, 안정적인 수비로 이정윤에게 틈을 안 줬다. 이정윤은 윤현지의 맹공에 당황하며 초반을 제외하곤 소극적인 경기를 펼쳤고, 결국 지도 3개를 받으며 윤현지에게 2연패를 당했다.

윤현지는 이번 국가대표 최종평가전 직전에 열린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 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자 78kg이상급에서는 한미진(충북도청)과 김하윤(한국체대)이 만났다. 한미진은 무섭게 떠오르는 신에 김하윤을 물리치고 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다. 쉽지 않았다. 첫 경기부터 연장 승부가 이어졌다. 하지만 한미진은 김하윤에게 지도 3개를 이끌어내며 승리를 가져왔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쉽사리 승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보니 어느 누구도 쉽게 기술을 걸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자는 노련미를 가진 한미진이었다. 한미진은 침착하게 김하윤을 견제했고, 김하윤은 이를 이겨내지 못하며 도망가는 승부를 펼쳤다. 김하윤은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가며 승리를 노렸으나, 한미진이 첫 번째 경기에 이어

이번에도 지도 3개로 반칙승을 따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도 한미진은 지도 3개 반칙승으로 이기며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진출 티켓을 가져왔다. 한미진은 78kg이상급 강자다. 2017년과 2019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연패를 달성했으며 2019년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여자 유도의 간판으로 활약해왔다. 도쿄에서 78kg이상급 간판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로써 한국은 아직 기준(도쿄올림픽은 IJF 올림픽 랭킹 기준 체급별 상위 18위 내에 들거나 대륙별 올림픽 랭킹 체급별 1위를 차지해야 출전할 수 있다)을 충족하지 못한 남자 81kg이하급과 여자 63kg이하급을 제외한 각 체급 별 대표 선수를 모두 선정하는 데 성공했다.

남자 81kg이하급 이성호(한국마사회), 이문진(KH필룩스) 여자 63kg이하급은 한희주(KH필룩스), 조목희(한국마사회)는 6월 6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2021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또한 아직 올림픽 진출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이 유력한 여자 48kg급 강유정(25위·순천시청), 여자 70kg급 김성연(29위·광주시철도공사)도 출전에 굳히기에 들어간다.

성인 선수들의 올해 첫 대회 성적은?

지난 4월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은 2021년 첫 실전대회에 나섰다. 성인 선수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 2021년 첫 국내 대회에 나섰다. 남자 60kg이하급에서는 최인혁(국군체육부대), 66kg이하급에서는 류승환(KH필룩스), 73kg이하급에서는 서동규(제주도청)가 우승했다. 또한 81kg이하급에서는 송민기(양평군청), 90kg이하급에서는 홍석웅(용인시청), 100kg이하급에서는 원종훈(양평군청), 100kg이상급에서는 황민호(용인시청)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여자일반부 48kg이하급에서는 이혜경(광주시철도공사)이 박은이(고창군청)를 꺾었고, 52kg이하급에서는 하주희(고창군청)가 이동현(성동구청)을 제압했으며, 57kg이하급에서는 박은송(동해시청)이 김재령(경남도청)을 이겼다. 그리고 여자 63kg이하급에서는 권유정(제주도청)이 이주연(광주시철도공사)을, 여자 70kg이하급에서는 이예원(고창군청)이 박다운(성동구청)을, 78kg이하급에서는 송세령(부산북구청)이 강경민(동해시청)을, 78kg이상급에서는 신지영(순천시청)이 이정은(인천시청)을 각각 물리치고 우승에 성공했다. ❷

미니인터뷰

양구평화컵 개최에 숨은 공신

김남준 강원도 유도회 전무

❏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유치게기가 공급하다.

▲ 2019년부터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원래는 2020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웠다. 애초부터 양구평화컵이라는 이름을 쓴 계기가 통일을 앞두고 접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양구에서 남북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꿈꿨다. 그래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해외 파견의 기회를 주고 고교 선수들의 경우에는 국제 대회 출전을 지원하려고 했다. 앞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 그렇다면 대회 준비 과정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 처음 대회 준비를 할 때만 해도 강원도와 강원한우 같은 곳에서 스폰서가 되어주기로 했는데, 대회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 지원을 받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 지역적 관심도 커 보인다.

▲ 양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꾸준히 유도 대회가 열리기를 바랐다. 아무래도 양구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는 것 같다.

❏ 양구가 강원도 유도의 중심지 더 나아가서는 전국 유도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

었는데.

▲ 양구가 비록 소도시이긴 하지만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을 대한유도회, 강원유도회 지원 속에 시작하는 등 유도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양구군에서 협조가 돼서 강원도 유도회관을 양구에 유치하는 등 유도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 대회에 대한 가야 할 길, 목표가 있다면

▲ 첫 취지가 그랬듯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북한 선수들도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윤현지

송민기

한국 남자 유도의 최중량급 기대주 김민종(용인대)이 간판스타 김성민(KH필룩스)을 꺾고 2020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성민은 5월 8일 양구문화체육관에서 3전 2선승제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100kg이상급 최종평가전에서 2경기 모두 절반승을 거두며 한국 유도 최중량급 세대교체를 알렸다.

첫 경기부터 김민종은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대선배인 김성민을 괴롭혔다. 치열한 잡기 싸움을 뚫고 김성민이 먼저 공격에 나섰지만 김민종은 차분하게 이를 되치기로 받아쳐 절반승을 거두고 기세를 올렸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다시 맞붙은 경기에서 김민종이 경기 종료 42초를 남기고 안 뒤축으로 절반을 따내면서 그토록 염원했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어냈다.



한국 유도 최중량급 국가대표 세대교체

남자 100kg이상급 김민종

Q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은.

A 일단 준비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최종 목표가 선발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

Q 선발되기까지 과정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A 선발전에 앞서 타슈켄트 그랜드슬램에서 (김)성민이형에게 졌는데 그 때 경험이 이번 선발전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 것 같다.

Q 그때는 기분이 어땠나.

A 선발전에서 (김)성민이형을 넘길 때 딱 그 기분이었던 것 같다.

Q 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것이 있는지.

A 일단은 부상만 안당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큰 부상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준비했다. (김)성민이 형이나 저나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다.

Q 마지막까지 대표 선발전을 거뒀던 선수에게 한마디 해달라.

A 선발전에서 같이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경쟁을 해오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김)성민이형과 같은 경쟁상대가 없었다면 운동도, 기량 향상도 다 없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김)성민이형 덕분에 나 역시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Q 지금 아픈 곳은 없는지.

A 자잘한 부상은 있지만 특별히 크게 염려되는 곳은 없다.

Q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체력적인 부분이나 상대해야 할 일본 선수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Q 도쿄 올림픽에서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A 일본의 하라사와 선수가 가장 신경 쓰인다. 일단 이전까지 세 번 맞붙어 모두 졌다. 최근에도 상대했는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기적인 부분에서 보다 연구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A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 올려서 체력, 기술, 부상부분을 최고로 올릴 수 있게 운동을 할 생각이다.

Q 앞으로 목표와 각오는.

A 목표는 금메달이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메달 목표에 맞는 준비를 하겠다.



어깨 부상으로 꺾였던 날개 다시 폈다

여자 78kg이하급 윤현지

Q 국가대표 선발된 소감은.

A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무대를 밟게 된 것이 믿기지 않고, 올림픽 무대까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경험을 겪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Q 선발되기까지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지난 리우올림픽을 준비하다 출전 티켓을 따고도 어깨에 큰 부상을 입어 출전할 수 없었다. 이후에 1년 동안 재활을 해야 했고, 2년 동안 뒤쳐지다가 2018년 순천만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잡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열심히 하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날이었다.

Q 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것이 있는지.

A 하루 하루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

다. 잠, 약, 운동 시간, 준비부터 훈련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앞두고 설렘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Q 마지막까지 대표 선발전을 거뒀던 선수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이)정윤이가 있어서 넘어서려고 더 열심히 했고, 서로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뛰어 넘으려고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심으로 고맙고, 부상없이 서로가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아픈 곳은 없는지.

A 원래 좋지 않았던 어깨가 조금 좋지 않다. 올림픽 전까지도 아픈 부분도 보강하려고 생각한다.

Q 보완해야 할 점은.

A 기술적으로 연결 기술 없이 큰 기술만

집중력이 결국 승패를 갈랐다. 많은 경기 경험을 가진 윤현지(안산시청)는 경기 시작 전부터 상대에 비해 마음에 여유가 느껴진 반면 패기의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모습은 경기 결과로 이어졌다.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78kg 이하급 여자부 최종평가전 1차전에서 윤현지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경기를 펼쳤다. 정규 시간 동안 비록 승부를 내진 못했지만 연장 2분 42초가 흐른 뒤 허리 꺼치기 골든 스코어로 첫 경기를 승리하며 올림픽 출전에 한 발 다가섰다.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을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확실한 점수를 만들지 못한채 시간만 흘려보내야 했다. 경기 중반에 이정윤이 다소 소극적인 경기 자세를 보이자 심판은 지도를 선언했고, 윤현지는 지도승으로 승리를 거두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구사하기 때문에 굳이기로 연결하는 포인트를 잡는 것에 대한 부분과 파워를 키우려고 해야 할 것 같다.

Q 도쿄 올림픽에서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A 일본의 하마다 소리라는 선수다. 굳이기를 특기 기술로 하는 선수인데 2014년 딱 한 번 맞붙었는데 그 때 굳이기로 졌다. 세계랭킹에서는 프랑스 선수가 앞서지만 플레이 성향이 일본 선수인 하마다 선수가 오히려 나겐 까다롭다.

Q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A 잡기 자세 그리고 연결 기술에 대해 보완을 집중할 생각이다.

Q 도쿄 올림픽에서의 목표와 각오는.

A 누구나 다 똑같이 훈련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못할 만큼 훈련을 해내는 것이 각오다. 목표는 역시 금메달이다.



보성과 재학 시절부터 최민호, 안바울의 뒤를 이을 경량급 유망주로 불렸던 류승환(KH필룩스)이 실업무대 데뷔전이었던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66kg이하급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 용인대를 졸업하고 KH필룩스에 입단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1년 공백이 무색한 완벽한 경기력으로 한국 유도 경량급 차세대 선두주자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Q 먼저 실업무대 데뷔전에서 우승을 축하한다.

A 사실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3개월 동안 재활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준비 기간도 짧았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운 좋게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Q 원래 유도 선수가 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유도와 인연을 맺게 되었나.

A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다. 유도를 하기 전에는 검도를 했다. 그 때만 해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허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조금 강인해 지고 싶었다. 우연한 기회에 최민호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멋있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시작했다.

Q 고교시절 그리고 용인대 재학시절까지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A 너무 너무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부상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했지만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할 때마다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더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Q 대학을 졸업하고 KH필룩스팀에 입단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일 수 없었는데.

A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대회가 열리지 않아 마음고생도 많았던 것 같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다.

Q 2년 만에 첫 대회에 나선 느낌은 어땠나.

A 오랜 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긴장도 많이 됐다. 다행스럽게 한 판으로 이기면서 잃어버렸던 경기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고, 이후부터 자신감도 붙어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간 것 같다.

Q 경기 전 만난 황희태 감독은 류승환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A 감사한 마음 뿐이다.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음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팀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 밖에 없다.

Q KH필룩스 팀에 입단하면서 좋은 선배들과 함께 하게 됐다.

A 동기 부여도 되고 자극도 받고 많이 배운다.

Q 어떤 점을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었나.

A 조구함 선배의 경우 경기를 할 때 마음가짐이나 훈련을 할 때 자신만의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문진 선배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훈련 외 시간에도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다.

2020시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 할 때 이문진 선배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줬다. 가장 의지가 된 선배였고, 정신적 지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Q 당시 어떤 고민이 있었나.

A 아무래도 대회가 없고, 부상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조바심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선배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 다시 마음을 잡고 운동을 할 수 있었다.

Q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A 처음 유도를 시작할 때 최민호 감독님의 경기 장면이 동기가 됐다. 작년에 잠시 최민호 감독님에게 유도를 배웠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이뤄냈을 때도 감독님 생각이 많이 났다.

최민호 감독님과 같은 선수가 돼서 올림픽 메달을 따내 유도를 좋아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Q 남은 시즌,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한다면.

A 좋은 선배들 밑에서 보고 배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

Q 부상 복귀 후 첫 국내 대회에서 우승했다. 소감이 어떤지.

A 원래 뛰던 체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할 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다. 마음이 편해선지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부상 후 첫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Q 이전 대회와 달리 소속 팀도 바뀌었다.

A 2020년 10월 고질적인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됐다. 그 때만 해도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술 이후 제주도에 계신 은사님께서 이곳에서 재활도 하고 마음도 편하게 운동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셔서 지난 4월 팀을 옮겼다.

Q 큰 부상이어서 심리적으로나 경기력에서 문제가 되었을 것 같다.

A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수술 3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해 성적이 좋지 않아 자신감을 많이 잃기도 했다. 이번 대회 우승이야말로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Q 부상 3개월 만에 자비로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

A 올림픽 출전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다. 올림픽 출전을 위한 기본 포인트만 따지는 생각으로 선발전을 바라보며 경기에 나섰다. 그런데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했고, 목표로 했던 포인트 쌓는 것도 실패했다. 선발전도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심적인 부분을 내려 놔다고 생각 했는데, 막상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다. 조금 마음이 관찮아 질 때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분명 있었다. 지금은 차라리 빨리 결정이 나서 마음



권유정(제주도청)은 여자 유도 경량급의 간판급 선수 중 한 명이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꾸준히 입상권에 올랐고, 국가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에게 2020년은 생각하기도 싫은 한해가 되고 말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상가상으로 대학 재학 당시 입었던 어깨 부상이 악화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부상이라는 시련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권유정은 2021년 첫 국내대회로 열린 2021 양구평화컵 유도대회 63kg이하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건재를 알렸다.

편한 것 같기도 하다.

Q 부상 그리고 올림픽 출전 좌절을 딛고 양구평화컵에 처음 나섰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 어떤 기분이었나.

A 원래 내 체급으로 출전을 했다면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체중 감량이 나 잘 해야 한다는 목표치가 분명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행히 한 체급 올려 출전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기도 했다. 경기를 끝내고 나서는 하나의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한 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도전의식도 생긴 것 같고, 욕심도 내볼 수 있게 됐다.

Q 다음 대회에도 63kg이하급으로 출전할 생각인가.

A 도전해 볼 생각은 분명 있다.

Q 오랜만에 열린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결은 무엇인가.

A 돌아보면 항상 시간에 쫓기고 실름 없이

경기 준비만 해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조금은 여유롭게 경기를 준비했다.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충분히 휴식도 즐겼다. 운동을 해야 할 때도 큰 스트레스가 없다보니 집중할 수 있었다.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니 쉽게 풀린 것 같다.

Q 아쉬움이 크겠지만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A 다시 도전할 것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먼저 아시안게임에 도전을 해 보고 천천히 하나씩 즐기면서 준비할 생각이다. 다음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기필코 따보고 싶다.

Q 올림픽 출전 외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 지난 시즌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지 앞으로 운동을 그만 둘 때까지 큰 부상 없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31살 이전에 처음 유도를 시작했을 때 목표를 모두 이뤄 더 이상 아쉬움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 ☺

특급 유망주들의 향연

제25회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북 안동에 위치한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제25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2021년 들어 처음 열린 국내 대회다. 대한민국 유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꿈나무들의 땀과 열정이 돋보였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철저한 방역과 안전은 대회 유치의 '필수'

제25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이후 열린 첫 대회였다. 그간 대한유도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떻게든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유망주

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다. 결국엔 모든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다.

청정 도시 경북 안동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었다. 모든 스포츠가 경기 진행 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사람 간의 1m

이상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열 체크 및 QR 코드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기장 입장 전 안내자들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 안동에 오기 전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음성 확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사라

지거나, 혹은 자신의 것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겨도 입장은 단호하게 불허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서,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팔목에는 당일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는 팔찌를 줬다. 이 팔찌가 없으면 경기장 입장은 불가했다.

대한유도회는 이번 대회에 최소 인원만을 파견했다. 예전이라면 북적북적하고 많은 인원들의 함성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선수도 최소한, 지도자도 최소한으로 왔다. 대회 역시 당연히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관중석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본부석에는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 외 경기장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경기와 관련 없는 선수들은 체육관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매트 위에서도 선수들은 악수 대신 목례로 접촉을 최소화했다. 경기 입장 선수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동선도 달랐다. 접촉하다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시상식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해 열린 경찰청장기 대회에서는 시상식이 없었다. 혹시 일어날 '만약의 상황'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수들의 동기 부여와 성취감을 주기 위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을 비롯해 경북유도회 엄득웅 회장 등이 시상식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대회는 무사히 마무리 됐다.

두 특급 유망주 이남훈과 이은결 대학 데뷔 무대 성적은?

주산산업고를 졸업하고 20학번으로 용인대에 입학한 두 유망주가 있었다. 바로 한국 남자 유도의 희망으로 불리는 남자 90kg이하급 이남훈과 남자 73kg이하급



이은결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이남훈과 이은결의 고교 시절 활약상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남훈은 지난 2017년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친 실력파다. 그리고 이남훈이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일명 '도장 깨기'를 하며 최고 자리에 올라온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43kg, 48kg, 51kg 이하급을, 중학교 때는 48kg, 51kg, 55kg, 60kg, 66kg이하급을 석권했다. 고등학교



에 넘어와서는 73kg, 81kg, 90kg이하급을 모두 우승한 경향이 있는 선수다. 도합 11체급을 모두 석권한 것이다. 말이 11체급 석권이지, 한 체급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도 있으니 이남훈의 이러한 성적은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꿈나무 시절 이남훈을 지도했던 임희대 감독은 "이런 선수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다.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세계 유스 선수권이나 국제 대회에서도 우승을 여러번 했다. 이제 올림픽-세계선수권에서만 메달을 따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남훈의 장점은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연하고 좌우 모두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좌우 모두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방이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명 주목할 선수인 이은결은 이미 고교 시절 남자 73kg이하급에선 최강자로 불렸다. 고교 3학년 시절에 나간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싹쓸이했다. 순천만대회, 용인대총장기, 청풍기대회, 아시아-오세아



이은결



니아 청소년 유도대회까지 국내 및 국제 대회를 모두 싸웠었다. 이은결의 고교 시절 은사인 이상은 보성고 감독은 “말이 필요 없는 선수다. 장차 대한민국 유도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 이미 대한유도회에서는 이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클지 기대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은결이 더욱 무서운 점은 자신을 향해 과감히 채찍을 휘둘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연구해 더 보완하고, 자신의 장점은 완전한 자신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한 마디로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이은결이다. 하지만 2020년, 두 선수는 어느 대회도 출전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내, 외 대회가 연기되거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종목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한 유도. 그런 가운데 한 경기, 한 경기 경험이 소중한 두 선수에게 지난해는 아쉬운 한 해였다. 실전 경험을 쌓는 대신 두 선수는 결국 재활을 택했다. 이은결은 무릎, 이남훈은 어깨 재활에 힘썼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용인대 이름을 달고 첫 대회에 나선 두 선수. 동생들을 상대로 한 수위 기량을 선보이며 순조롭게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두 선수는 마치 짝이 4강에서 고전했다. 이은결은 금호공고 김대현을 4강에서 만났다. 이전 경기들과는 달리 초반에 치고 나가지 못했다. 체력만 계속해서 소모됐다. 다행히 이은결은 4강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전에서 자신의 고교 후배 이승찬(보성고)에게 또 한 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자신의 온갖 기술들이 이승찬에게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승찬의 대범함이 이은결을 당황케 했다. 하지만 이은결은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어가며 이승찬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대학 진학 후 처음으로



여예준

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남훈도 4강과 결승에서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을 만났다. 4강에서는 서울체고 김문수, 결승에서는 보성고 박상훈을 만났다. 두 선수 모두 이남훈과 함께 한국 남자 90kg이하급을 이끌어 갈 재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생들의 패기에 이남훈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오랜만에 치르는 실전 경기에 대한 부담감과 동생들과의 승부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남훈 역시 4강과 결승에서 동생들을 상대로 형의 위엄을 보여주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대학 진학 후 처음 나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남훈과 이은결. 이번 대회를 통해 무언가 느끼는 게 많았을 것 같다.

그 외 선수들의 결과는?
용인대, 14체급 중 11체급 싸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오랜 만에 실전 경기를 치렀다. 먼저 남자 60kg이하급에서는 김태윤(용인대)이 두만재(보성고)를 제압했다. 남자 66kg이하급에서는 용인대 안재홍이 한국체대 배동현을 누르며 우승했다. 또한 이은결, 이남훈과 함께 한국 유

용인대 정범석을 제압했다. 남자부에서는 용인대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7체급 중 무려 6체급을 휩쓸었다. 역시 한국 유도의 간판 학교임을 입증했다. 여자 48kg이하급에서는 한국체대 김지연, 여자 52kg이하급에서는 용인대 황수련이 우승했다. 또한 여자 57kg이하급은 용인대 김주희가 도개고 김예지를 제압했고, 여자 63kg이하급에서는 용인대 신채원이 영선고 차아리를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여자 70kg이하급에서는 한국체대 유현지, 여자 78kg이하급에서는 용인대 이윤선, 여자 78kg이상급에서는 한국체대 박샛별이 우승했다. 이번에도 용인대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48kg이하급과 78kg이상급을 제외한 여자부 7체급 중 5체급을 모두 용인대 선수들이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용인대는 이번 대회 14체급 중 11체급을 싹쓸이했다. 🏆



대학에서 첫 우승

73kg이하급
용인대 이은결



진천선수촌
들어가는게 목표

Q 대학 와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소감을 부탁한다.

A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Q 결승전을 어렵게 풀었다. 고전한 이유는.

A 일단 같은 학교(보성고) 후배다 보니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나 같은 경우 후배에게 지는 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Q 코로나19 시대에서 몸 관리는 어떻게 했다.

A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웨이트보다는 유도 본연의 훈련에 중점을 뒀다.

Q 장성호 코치가 이야기하기를 대회가 없

을 때에는 무릎 보강 훈련에 힘썼다고 들었다.

A 예전 일이다. 지금은 괜찮다.

Q 이제 아마추어 무대에서 벗어나 성인 무대에서 뛰고 있다. 발전해야 될 부분은.

A 난 유도 선수다. 웨이트 훈련보다는 유도 기술 발전에 더 신경을 쓰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는 뛰지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 대회가 없는 동안 팔꿈치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잘 되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컨디션 관리 잘 하겠다.

Q 이원희 코치가 합류했다. 이원희 코치는 73kg이하급 강자 아니었나. 보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A 같은 체급이어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코치님의 운동 스타일을 따라 한다면 금방이라도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나에게 독한 말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그게 다 맞는 말이라서 반박을 못 한다.

Q 2021년 목표는 무엇인가.

A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면 1등 해서 진천선수촌 들어가는 게 목표다.

Q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 보완점이 있다면.

A 아직도 주특기가 많이 없고 기술 소화력이 좋지 않다. 이원희 코치님에게 더 배우고 싶다. 업어치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 대회 때도 사용을 잘 하지 못했다.

Q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 들려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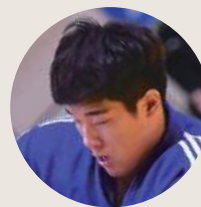
A 난 하나님의 힘을 정말 많이 받는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 세계 챔피언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겨운 재활 거쳐 든 우승컵

90kg이하급
용인대 이남훈

국제대회 우승도
하고싶다



Q 대학 와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A 기분이 정말 좋다. 경기 경험을 많이 해 봐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는 대회를 거의 뛰지 못했다.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지 힘들다.

Q 4강과 결승전에서 고전을 했다. 고전한 이유를 찾는다면.

A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 아무래도 올해 첫 시합이고 동체급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

Q 작년에 부상으로 재활 훈련을 했다고 들었다. 어디가 안 좋onga.

A 어깨가 많이 안 좋았다. 그래도 꾸준히 재활을 한 덕분인지 지금은 괜찮다. 경기를 하기에 조금 힘이 들지만 이전보다는 낫다.

Q 대학 와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나.

A 부족한 기술 연마에 힘을 쏟고 싶다. 기술 훈련을 더 하고, 보완해야 한다. 변칙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

Q 대학 와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나.

A 아무래도 아마추어 때와는 다르게 실력 좋은 사람이 많다.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다.

Q 대학교 와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각오 한 마디 들려달라.

A 대학교 와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1등을 하고 싶고, 국제대회 나가서도 1등을 꼭 하고 싶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



2021 도하마스터스

한국, 금메달 3개로 종합 2위

한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 도하마스터스에서 금메달 3개의 성적을 내며 종합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2월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이후 11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였다. 국제유도연맹 체급별 세계 랭킹 36위 이내 선수들이 출전했다.

아버지에게 받친 금메달

남자 60kg이하급 김원진 (안산시청)

남자 60kg이하급 김원진이 올해들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원진은 지난해 1월 텔아비브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2월 뒤 셀

도르프 그랜드슬램에선 3위를 차지하며 세계랭킹을 12위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1회전 부전승을 거둔 김원진은 2회전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세계랭킹 9위 루크비 치브비미아니를 상대로는 허리후치기 절반승을 거뒀다.

3회전 발목받치기 한판승, 4회전 팔가로누워끼기 한판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준결승에선 세계랭킹 22위 프랑스의 카야르를 옆으로 누우며 던지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세계랭킹 11위 대만의 에이스

양웅웨이였다. 김원진은 종료 1분 19초 전, 양웅웨이의 메치기를 받아치며 곧바로 왼다리 누우며 던지기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곤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양웅웨이를 쓰러 뜨렸다. 4경기 연속 한판승과 함께 우승컵을 차지했다. 하지만 김원진은 마음껏 웃지 못했다. 금메달을 딴 뒤 갑작스레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원진의 부친은 지난 1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운명했다. 김원진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주변을 숙연케 했다. 김원진은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에게 꼭 도쿄올림픽 메달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맹훈련을 하고 있다.



안바울

아무도 안바울을 막을 수 없다

금메달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 (남양주시청)

세계랭킹 13위 안바울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바울은 1회전을 빼놓고는 모두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하지만 역시나 노련한 선

수답게 상대 선수의 흐름을 뺏으며 자신의 흐름대로 경기를 풀어갔다. 결국 결승까지 올라왔다. 결승 상대로는 세계랭킹 8위 이스라엘의 바루크 스마일로프가 나왔다. 바루크 스마일로프 역시 까다로운 선수였기

에,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고 결국 연장전까지 갔다. 두 선수 모두 소극적인 플레이로 '지도' 2회씩을 받은 상황. 어느 누구든 한 번의 지도를 더 받게 되면 반칙패로 끝나는 상황이었다. 이때 안바울이 상대 빈틈을 노려 엮어치기를 시도했고, 골든 스코어 절반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안바울은 2018년 11월 병역 특례 봉사활동 확인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6개월 자격 정지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복귀 이후 이렇다 활약을 펼치지 못하다 2019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3위, 2019 전국체육대회 1위를 기록하며 슬럼프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그러다 지난해 열린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 파리그랜드슬램 2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안바울은 역시 한국 유도의 희망임을 최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안바울은 2016 리우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안바울이 5년 전 아쉬움을 딛고 도쿄에서는 금메달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김원진

라이벌 제압하며 기분 좋은 우승
금메달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 (KH필룩스)

남자 73kg이하급 세계랭킹 13위 안창림은 라이벌을 제압했다. 안창림은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두 번의 절반승, 두 번의 한판승을 거두며 순탄하게 결승전에 진출했다. 안창림은 결승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2위인 일본의 하시모토 소이치를 만났다. 이번 결승이 국제 대회에서만 여섯 번째 맞대결이었을 정도로 두 선수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재일교포 3세인 안창림이 2013년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을 때 결승전 상대 역시 하시모토 소이치였다. 이번 결승전 전까지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 안창림의 근소한 우위였다.

서로를 잘 알고 있기에 경기는 ‘누가 기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팽팽했

다. 연장전을 가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하시모토 소이치가 너무 급했던 탓일까. 연장전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 탓에 반칙패 선언을 받았다. 연장전 3분 43초에 하시모토 소이치는 안창림을 상대로 소매 들어 메치기를 시도하려다 오른팔 소매를 잡았다. 그 동작에서 안창림의 오른팔은 허공에서 한바퀴를 돌아 하시모토 소이치의 상체에 눌리는 아찔한 상황이 나왔다. 심판은 경기 중단을 선언했고, 하시모토 소이치에게 반칙패 판정을 내리며 경기는 안창림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시모토 소이치를 상대로 강세를 이어간 안창림은 이제 또 한 명의 천적 오노 쇼헤이에게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오노 쇼헤이는 안창림을 상대로 6전 6승을 기록 중인 안창림의 천적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안창림에게 눈물을 안겼으며, 최근 맞대결인

2020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결승전에서도 안창림은 오노 쇼헤이에게 패했다. 물론 오노 쇼헤이는 이 체급 최강자다. 2019년 세계선수권 우승자도 오노 쇼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술과 체력 모두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평을 듣는 안창림이 오노 쇼헤이를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안창림이 다음에 또 한 명의 천적을 제압할 수 있을 지도 두고 보자.

종합 2위의 호성적
에이스들의 노메달은 아쉬움

한국 유도는 약 11개월 만에 참가한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 3개로 프랑스(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실전 대회에 목말랐던 선수들은 제 기량을 뽐내며 올림픽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메달을 기대했던 선수들이 남긴 성적은 아쉬웠다. 대회 마지막 날 출격한 남자 90kg이하급 곽동한(포항시청)과 남자 100kg이하급 조구함(KH필룩스), 남자 100kg이상급 김성민(KH필룩스)이 모두 1회전에서 탈락했다. 남자 66kg이하급 김임환(한국마사회) 역시 2회전에서 떨어졌다. 남자 81kg이하급 이성호(한국마사회)는 동메달 결정전까지 올라갔으나 이스라엘의 무키에 허벅다리걸기 절반패를 당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남자 100kg이상급 김민중(용인대)도 패자진출전에서 허벅다리걸기 절반+누르기 절반 종합 한판패를 당했다. 그 외 여자 52kg이하급 박다솔, 남자 60kg이하급 이하림은 2회전에서 떨어졌다. 여자 52kg이하급 정보경(안산시청), 57kg이하급 김잔디(KH필룩스)와 김지수(경북체육회), 권유정(제주도청)은 모두 1회전에서 떨어졌다. 여자 63kg이하급 한희주(KH필룩스)와 조목희(한국마사회) 역시 2회전에서 쓴맛을 봤고, 여자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은 동메달 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또한 여자 78kg이하급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과 윤현지(안산시청), 여자 78kg이상급 한미진(충북도청)과 김하윤(한국체대)도 입상에 실패했다.

여자 선수들은 이번에도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다. 메달 기대주였던 김하윤이 패자전에서 상대 반칙패에 의한 부전승으로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으나 19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의 카이라 사이트에게 연장 접전 끝에 빗당겨치기 절반으로 아쉽게 패했다.

남자 선수들이 최근 국제 대회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 여자 선수들의 활약은 많이 아쉽다. 김하윤과 김성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회전, 2회전에서 탈락했다. 새로운 승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한국 여자 유도다. ●



안창림

2021 도하마스터스 메달리스트 경기결과		
60kg이하급 김원진 (안산시청/WRL 12위)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CHKHMIMIANI, Lukhumi(GEO/WRL 9)	허리후리기 되치기 절반승
3회전	LKHAGVAJAMTS, Unubold(MGL/WRL 26)	발목받치기 한판승
4회전	LUTFILLAEV, Sharfuddin(UZB/WRL 4)	팔가로누워끼기 한판승
준결승	KHYAR, Walidel(FRA/WRL 22)	옆으로누우머던지기한판승
결승전	YANG, Yung Wei(TPE/WRL 11)	누우머던지기 한판승
66kg이하급 안바울 (남양주시청/WRL 13위)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KATZ, Nathan(AUS/WRL 51)	끼기 한판승
2회전	CARGNIN, Daniel(BRA/WRL 6)	-
3회전	YONDONPERNENLEI, Baskhuu(MGL/WRL 7)	나오는발차기 절반승
준결승	VIERU, Denis(MDA)	반칙승(지도3/WRL 24)
결승	SHMAILOV, Baruch(ISR/WRL 8)	업어치기 절반승(GS)
73kg이하급 안창림 (KH필룩스/WRL 13위)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BARBOSA, Eduardo(BRA/WRL 29위)	업어치기 한판승
2회전	CILOGLU, Bilal(TUR/WRL 5위)	업어치기 절반승
3회전	TURAEV, Khikmatillokh(UZB/WRL 8위)	업어치기 절반승
준결승	SMAGULOV, Zhansay(KAZ/WRL 26위)	안위축후리기 한판승
결승전	HASHIMOTO, Soichi(JPN/WRL 2위)	반칙승



2021 타쉬켄트 그랜드슬램 4개 대회 연속 우승한 안바울

2021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2021 타쉬켄트 그랜드슬램이 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유도의 간판 안바울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기세는 어디까지 4연속 국제 대회 우승

**금메달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
(안산시청)**

지난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도하 마스터스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바울. 안바울은 2020년 1월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 이후 3개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세계랭킹도 어느덧 4위까지 올라

왔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바울의 활약, 왜 그가 한국 유도의 희망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안바울은 1회전에서 부전승으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2회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올도세프에 반칙승을 거뒀다. 3회전과 4회전에서는 각각 업어치기 한판승,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며 무리 없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상대는 라이벌 김임환이었다. 안바울과 김임환은 한국에서도 66kg이하급 최강자를 두고 격돌하는 라이벌이다. 김임환은 2015년부터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안바울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안바울이 병역 특례 봉사활동 확인 서류 허위 작성 관련 징계로 빠져 있는 사이, 남자 66kg이하급에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알리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는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유도계를 놀라게 했고, 2019 후허하오터 그랑프리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준결승전도 팽팽하게 흘러갔다. 웃은 자는 안바울이었다. 안바울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친 것과는 달리, 김임환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지 못했다. 결국 안바울이 지도 3개를 얻으며 반칙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라이벌을 꺾은 안바울은 결승전에서 몽골의 윤돈페렌레이 바스쿠를 만났다. 경기 시작 48초 만에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며 상대 선수와 나란히 지도를 받은 안바울. 경기 시작 2분여 지났을 때, 경기 첫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윤돈페렌레이 바스쿠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을 펼쳐다는 이유로 지도를 또 받았다. 이후 2분 40초 경, 두 선수 모두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는 심판의 판정과 함께 또 한 번 나란히 지도를 받았다. 안바울은 지도 2개, 윤돈페렌레이 바스쿠는 지도 3개. 안바울



66kg이하급 안바울



100kg이상급 김성민

이 반칙승으로 윤돈페렌레이 바스쿠를 꺾으며 4연속 국제 대회 우승에 성공했다.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안바울의 기세가 무섭다.

**은메달 남자 100kg이상급 김성민
(KH필룩스)**

한국 남자유도의 큰 형님 김성민(KH필룩스)

은 값진 은메달을 땀. 김성민은 1회전 부전승, 2회전과 3회전 모두 한판승으로 마무리하며 손쉽게 4회전에 진출했다. 4회전 상대는 동체급 라이벌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손꼽히는 김민중(용인대)이었다. 김성민은 김민중을 상대로 뒤잡아메치기 되치기 기술을 사용해 깔끔한 한판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도 허리후치기



78kg이하급 이정윤

이번에는 달랐다. 여자 선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탄을 쏘았다.
먼저 여자 52kg이하급 정보경(안산시청)이 출발점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 여자 78kg이하급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과
여자 78kg이상급 김하윤(한국체대)도 동메달 소식을 전했다.



52kg이하급 정보경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왔다. 김성민은 2회전부터 준결승까지 4연속 한판승을 기록했다.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가게우라 고코로였다. 김성민은 가게우라 고코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플레이했다. 상대를 지도 2개까지 몰아넣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가게우라 고코로가 지도 한 개만 더 받으면 끝나는 상황. 하지만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상대에게 빗당겨치기 절반을 내주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러야 했다. 그럼에도 김성민이 대회 기간 보여준 투혼은 인상적이었다. 김성민에게 4회전에서 패했던 김민중은 패자전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전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노메달 고리 끊은 여자 유도

정보경·이정윤·김하윤 동메달 획득

남자 선수들과 달리 여자 선수들의 국제 대회 메달 소식을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

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자 선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탄을 쏘았다. 먼저 여자 52kg이하급 정보경(안산시청)이 출발점이었다. 정보경은 3회전에서 한판패를 당했지만 패자전에서 폴란드의 피렌치 아가타를 상대로 절반승을 따내며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다. 이어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브라질의 라리사 피멘타에게 지도 3개와 함께 반칙승을 따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대회 마지막 날 여자 78kg이하급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과 여자 78kg이상급 김하윤(한국체대)도 동메달 소식을 전했다. 이정윤은 준결승에서 일본의 마미 우메키에게 누르기 한판패를 당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폴란드의 비에타 파켓을 상대로 업어치기 한판승을 따내며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김하윤도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아키라 소네에게 누르기 한판패를 당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러시아의 안젤라 가스파리아나를 조르기로 물리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하윤의 이번 메달은 의미가 있다. 김하윤은 지난 도하마스터스에서 안젤라 가스파리아나에게 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설욕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 여자 선수들의 선전은 누부셨다. 여자 78kg이하급 윤현지(안산시청)는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했고, 여자 52kg이하급 박다솔(순천시청)은 패자전, 여자 57kg이하급 김지수(경북체육회)도 동메달 결정전까지 올랐다. 동메달을 획득한 정보경과 더불어 박다솔과 김지수는 최근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여자 선수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확실한 동기부여를 얻었다. 🌻

2021 타슈켄트 그랜드슬램 메달리스트 경기결과

66kg이하급 안바울(남양주시청/세계랭킹 4위)			금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YULDOSHEV, Dilshodbek(UZB)	반칙승(지도3)	
3회전	SHIKHALIZADA, Nijat(AZE)	업어치기 한판승(GS)	
4회전	POLIAK, Matej(SVK)	업어치기 절반승	
준결승전	KIM, Limhwan(KOR)	반칙승(지도3)	
결승전	YONDONPERENLEI, Baskhuu(MGL)	반칙승(지도3)	

100kg이상급 김성민(KH필룩스/세계랭킹 17위)			은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TSIARPITSKI, Uladzislau(BLR)	소매들어업어치기 되치기 한판승	
3회전	AGRO SYLVAIN, Lorenzo(ITA)	어깨로메치기 한판승	
4회전	김민중(KOR)	뒤잡아메치기 되치기 한판승	
준결승전	ABRAMOV, Erik(GER)	허리후리기 한판승	
결승전	KAGEURA, Kokoro(JPN)	빗당겨치기 절반패	

100kg이상급 김민중(용인대학교/세계랭킹 14위)			동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ERDOGAN, Cernat(TUR)	업어치기 절반+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	
3회전	KAZHYBAYEV, Yerassy(KAZ)	업어치기 절반+발다리결기 절반 종합 한판승	
4회전	김성민(KOR)	뒤잡아메치기 되치기 한판패	
패자전	TSKHOVREBOV, Alen(RUS)	발다리결기 한판승	
동메달결정전	KOKAURI, Ushangi(AZE)	안다리결기 한판승	

52kg이하급 정보경(안산시청/세계랭킹 26위)			동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LEVITSKA-SHUKVANI, Tetiana(GEO)	기권승	
2회전	COHEN, Gili(SR)	안뒤축잡아치기 한판승	
3회전	LKHAGVASUREN, Sosorbaram(MGL)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패	
패자전	PERENC, Agata(POL)	어깨로메치기 절반승	
동메달결정전	PIMENTA, Larissa(BRA)	반칙승(지도3)	

78kg이하급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세계랭킹 23위)			동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ZENKER, Teresa(GER)	업어치기 절반승	
3회전	BABINTSEVA, Aleksandra(RUS)	업어치기 절반승	
준결승전	UMEKI, Mami(JPN)	누르기 한판패	
동메달결정전	PACUT, Beata(POL)	업어치기 한판승	

78kg이상급 김하윤(한국체육대학교/세계랭킹 16위)			동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ILMATOVA, Rinata(UZB)	누르기 한판승	
3회전	KALANINA, Yelyzaveta(UKR)	업어치기 한판승	
준결승전	SONE, Akira(JPN)	누르기 한판패	
결승전	GASPARIAN, Anzhela(RUS)	조르기 한판승	



‘이 기세 도쿄올림픽까지’ 어느 누구도 한국을 막을 수 없다

기분 좋은 메달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다

대회 첫째 날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첫째 날 경기에 나선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여자 52kg이하급 박다솔(순천시청)은 오랜만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다솔은 1회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예라리예바를 만나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후 2회전 반칙승,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와라시하를 상대로 한팔 업어치기 절반+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박다솔의 결승전 상대는 우즈베키스탄의 디요라 켈디요르바였다. 박다솔은 디요라 켈디

한국은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게조프름 스포츠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며 우즈베키스탄(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연이은 메달 소식은 도쿄올림픽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요로바를 상대로, 종료 2분여를 남기고 안다리걸기 기술을 걸어 절반을 얻어냈다. 이후 박다솔은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결국 승리를 가져오며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57kg이하급 김지수(경북체육회)도

2021년 첫 국제 대회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1회전 부전승, 2회전 한판승, 준결승전 반칙승을 거두며 다양한 승리로 결승에 올라선 김지수. 김지수는 내친김에 우승을 노렸으나 중국의 뤼 통취안에게 반칙패로 패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5연속 국제 대회 우승을 노렸던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남양주시청)도 준결승전까지 단 한 번의 브레이크 없이 결승에 올라섰으나 2021 트빌리시 그랜드슬램 우승자 우즈베키스탄의 누리라프 사르도르에게 안아돌리기 한판패를 허용했다. 5연속 국제 대회 우승이 아쉽게 좌절된 안바울은 은메달, 동체급인 김임환(한국마사회)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60kg이하급 이하림(한국마사회)도

값진 동메달을 얻었다. 1회전 부전승, 2회전 반칙승, 3회전 업어치기 절반승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일본의 나오히사 다카토에게 누르기 한판패를 허용하며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이하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조슈아 가츠(호주)를 상대로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승을 획득하며 3위로 시상대에 올라섰다. 대회 둘째 날에도 한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필룩스의 두 선수, 여자 63kg이하급 한희주와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이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먼저 한희주는 1회전부터 준결승전까지 누르기, 허벅다리걸기, 안다리걸기 등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상대를 제압하며 결승에 올라섰다. 한희주는 결승전에서 호주의 카타리나 해커(호주) 업어치기 되치기 절반으로 꺾고 자신의 올해 첫 국제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남자 73kg이하급의 간판 안창림 역시 지난 1월 도하마스터스 우승에 이어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했다. 안창림은 결승전에서 소문 마크마드베코프(타지키스탄)를 한판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우승했다. 안창림은 1회전 반칙승 이후 2회전,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모두 한판승으로 장식했다.

여자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와 남자 81kg이하급 이문진(KH필룩스)

은 은메달, 남자 63kg이하급 조목희(한국마사회)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81kg이하급 이성호(한국마사회)는 3회전 패배 후 패자전에서 무라도프를 만나 모두걸기 절반+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을 거두며 우여곡절 끝에 동메달 결정전에 올랐으나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대회 셋째 날, 여자 78kg이하급 간판 윤현지(안산시청)가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윤현지는 1회전, 2회전 통과 후 준결승에서 동체급 라이벌 이정운(광주도시철도공사)과 맞붙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다. 윤현지는 이정운을 상대로 지도 3개를 얻어내며 반칙승을 거뒀다. 결승전에서도 중국의 마전자오에 지도 3개를 빼앗아내며 반칙승을 거뒀다. 윤현지에게 준결승전에서 패했던 이정운은 동메달을획득했다.

한국 남자 유도의 희망이라 불리는 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용인대)은 값진 은메달을 땀다. 김민중은 1회전, 2회전 통과 뒤 준결승에서 대선배 김성민(KH필룩스)을 만났다. 김민중은 김성민을 상대로 안뒤축 걸기절반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김민중은 마지막 경기에서 웃지 못했다. 일본의 하라사와 히사요시에게 안뒤축 걸기 절반을 허용하며 아쉽게 은메달 획득에 머물러야 했다. 준결승에서는 안뒤축걸

기로 웃었지만, 결승전에서는 이 기술로 패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성민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78kg이상급 김하윤(한국체대)과 한미진(충북도청), 남자 90kg이하급 곽동한(포항시청)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이성호를 제외한 모든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며 우즈베키스탄(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기세가 혼성 단체전까지

개인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함께 혼성 단체전에 참가했다. 혼성 단체전은 남자부 세 체급(73kg이하급, 90kg이하급, 90kg이상급), 여자부 세 체급(57kg이하급, 70kg이하급, 70kg이상급)으로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하며 먼저 4승을 거둔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된다. 단 3:3 동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힌 체급의 선수들이 1점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한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의 4강전 상대는 우즈베키스탄이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4:1 승리를 거두며 손쉽게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을 만난 한국은 김지수의 승리 후, 김임환과 김성연이 연이어 패하며 1:2로 밀리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곽동한, 한미진이 연속으로 반칙승을 가져오며 3:2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대주 김민중이 카즈바예프에게 안뒤축걸기 한판승을 거두며 치열한 접전 끝에 4:2로 승리했다. 한국은 혼성단체전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국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귀국했다. 🇰🇷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선수권대회 개인전 결과

체급	선수(소속)	결과	체급	선수(소속)	결과
66kg이하급	안바울(남양주시청)	은메달	52kg이하급	박다솔(순천시청)	금메달
66kg이하급	김임환(한국마사회)	동메달	57kg이하급	김지수(경북체육회)	은메달
73kg이하급	안창림(KH필룩스)	금메달	63kg이하급	한희주(KH필룩스)	금메달
81kg이하급	이문진(KH필룩스)	은메달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은메달
81kg이하급	이성호(한국마사회)	4강	60kg이하급	이하림(한국마사회)	동메달
90kg이상급	곽동한(포항시청)	동메달	63kg이하급	조목희(한국마사회)	동메달
100kg이상급	김민중(용인대학교)	은메달	78kg이하급	윤현지(안산시청)	금메달
100kg이상급	김성민(KH필룩스)	동메달	78kg이하급	이정운(광주도시철도공사)	동메달
			78kg이상급	김하윤(한국체육대학교)	동메달
			78kg이상급	한미진(충북도청)	동메달

올림픽 포인트 획득 나선 대표팀, 값진 동메달 성과 2021 카잔 그랜드슬램



이성호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러시아 카잔에서 2021 국제유도연맹(IJF) 카잔 그랜드슬램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한 올림픽랭킹포인트가 부여됐다. 한국은 올림픽출전권 획득이 유력한 선수들 위주로 소수 인원만을 파견했다. 선수 10명과 지도자 2명, 임원 1명까지 총 13명이 대회에 참여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값진 동메달 획득한 이성호와 조구함

남자 81kg이하급에 출전한 이성호(한국마사회)가 메달 소식을 전했다. 이성호는 1회전 부전승과 함께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후 2회전에서 독일의 테오를 만나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뒀고, 3회전과 4회전에서는 지도 3개와 함께 반칙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알란에게 지도 3개 반칙패를 허용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나선 이성호. 메달을 향한 간절함으로 경기에 임했다. 그 바람은 이루어졌다. 이성호는 경기 시작 2분 5초 만에 오른쪽 어깨로 기술을 시도한 뒤, 절묘한 다리걸기로 아슬란 라피나고프(러시아)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절묘한 업어치기 기술로 한판승을 거둔 이성호는

경기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포효했다. 전역 후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있는 이성호다. 같은 체급에 출전했던 이문진(KH필룩스)은 2회전에서 탈락했다. 남자 100kg이하급의 간판 조구함(KH필룩스)도 동메달 소식을 전했다. 조구함은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 안정권에 든 가운데 이번 대회는 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경기력 점검을 위해 출전했다.

조구함은 1회전 부전승, 2회전에서 브라질의 미키타를 지도 3개와 함께 반칙승을 거뒀다. 3회전에서는 러시아의 니아즈를 만나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다. 조구함은 연장전에서 업어치기 절반을 따내며 골든스코어 승리를 거뒀다. 조구함은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아르만을 만났다. 방심한 탓일까. 상대에게 안뒤축후리기 한판패를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오랜만에 나선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으나 실패했다.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인 동메달을 따고자 노력했다. 조구함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쿠콜리를 만났다. 정규 시간 4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했고,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향했다. 조구함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연장 승부 끝에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알렉산다르 쿠콜리를 눌렀다. 동메달을 목에 걸고 기분 좋게 귀국했다.

나머지 선수들의 성적은?

대회 첫째 날 경기에 나선 여자 48kg이하급 강유정(순천시청)과 57kg이하급 김지수(경북도청)는 아쉽게도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강유정은 1회전 브라질의 시바나를 상대로 지도 3개로 반칙승을 거뒀으나 2회전에서는 러시아의 이리나에게 반칙패를 허용하며 일찌감치 짐을 싸야 했다.

김지수는 1, 2회전을 통과하고 3회전에서 러시아의 다리아에게 허벅다리걸기 한판패를 당했다. 이후 패자전에서 가관승을 기록하며 체력의 이점을 갖고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의 테레사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을 내주며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다. 김지수는 5위를 기록했다.

대회 이틀날 이성호의 메달 소식을 제외하면 한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 여자 63kg이하급에 나선 한희주(KH필룩스)와 조목희(한국마사회) 모두 일찌감



조구함

2021 카잔 그랜드슬램 메달리스트 경기결과

81kg이하급 이성호(한국마사회)			동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DEMOURTISIDIS, Theo(GRE)	업어치기 한판승	
3회전	AZIZOV, Abas(RUS)	반칙승(지도3)	
4회전	BEKMURZAEV, Yunus(BLR)	반칙승(지도3)	
준결승전	KHUBETSOV, Alan(RUS)	반칙패(지도3)	
동메달결정전	LAPPINAGOV, Aslan(RUS)	업어치기 한판승	

100kg이하급 조구함(KH필룩스)			동메달
라운드	상대선수	결과	
1회전	-	부전승	
2회전	SVIRYD, Mikita(BLR)	반칙승(지도3)	
3회전	BILALOV, Niaz(RUS)	업어치기 절반승(GS)	
준결승전	ADAMIAN, Arman(RUS)	안뒤축후리기 한판패	
동메달결정전	KUKOLJ, Aleksandar(SRB)	업어치기 한판승	

치 탈락했다. 한희주는 1회전에서, 조목희는 1회전 반칙승을 거둔 후 2회전에 올랐으나 브라질의 케틀린에게 안아돌리기 절반+누르기 절반 종합 한판패를 허용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70kg이하급 김성연(광주철도도시공사)도 아쉬움을 남겼다. 김성연은 1회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비리보를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누르기 절반 종합 한판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2회전에서 일본의 아라이에게 발다리걸기 절반+누르기절반 종합 한판패를 내주며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대회 마지막 날 조구함과 함께 나선 100kg이상급 윤재구(포항시청)도 별 수확을 얻지 못했다. 윤재구는 1회전에서 독일의 사바에게 허리후리기 되치기 절반+발다리걸기 되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2회전에서 힘을 내지 못하며 무너졌다. 한국 남자 100kg이상급 양대 산맥 김성민(KH필룩스)과 김민중(용인대)에 가려 그간 빛을 보지 못한 윤재구.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❷



도쿄올림픽을 앞둔 대표 선수들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을까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2020년이 아닌 2021년에 열린다. 대표 선수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올림픽 메달이라는 큰 꿈을 위해 열띤 훈련을 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을까.

백신 접종, 부작용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 대회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다행히 2021년에는 각 국가에서 철저한 방역과 안전에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안전에 유의하며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는 진천선수촌에서 쿼린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금호연 남자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며 선수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금호연 감독은 “현재 체력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실전 경기 같은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선수들이 올림픽에 대한 꿈이 있기에 제한

된 상황 속에서 열띤 훈련을 임하고 있다. 감독인 나로서는 선수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 2차로 나눠 실시했다. 1차 접종은 4월 23일, 2차 접종은 5월 25일에 실시했다. 타종목 선수들은 근육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도 대표 선수들에게 이런 부작용은 없었을까.

금 감독은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몇몇 선수들이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보였는데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다. 주사 맞은 자리에도 큰 통증은 없었다. 백신 접종을 맞고 와서 선수들이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잘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은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된

다. 또한 식당에서도 칸막이를 두고 최대한 말없이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타종목 선수들과 접촉 및 사소한 만남도 하지 못한다. 진천선수촌에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훈련뿐이다. 이로 인해 선수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자칫 동기부여를 잃을 수도 있다. 금호연 감독도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

“결국엔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잃지 않도록 내가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선수들이 성취감을 갖고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려 한다. 선수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줬으면 한다.”

올림픽 전까지

대표팀의 계획은?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은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수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선수들이 부족함 없이 훈련하도록 힘을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진천선수촌에서만 훈련을 하면 선수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금호연 감독은 촌외 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6월 첫째 주에 국군체육부대를 방문해 약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한다.

금 감독은 “외부 훈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군체육부대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훈련 장소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훈련을 진행하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는 것을 두세 번 정도는 시행하려 한다. 선수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실전과 같은 훈련. 파트너와 함께 하는 훈련은 지금 현재로서 힘든 상황이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맞았어도 이를 뚫고 코로나19 감염이 되는 사례가 몇 차례 나왔기에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금호연 감독은 “올림픽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맞았어도 감염될 확률이 의학적으로 있다고 하더라. 파트너와 함께 하는 훈련을 매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파트너와 함께 훈련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언제나 코로나19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금호연 감독과 선수들의 마음에는 오직 올림픽 메달이라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다. 금호연 감독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다. 선수들이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다. 도전 정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은 따고 돌아오겠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



유도 지방화 시대(11)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스포츠도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경기가 읍·면 단위 소도시에서 빈번하게 열리고 지방 팀들의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유도다. 지역별로 뚜렷한 실력 편차를 보이던 경기력도 어느 사이 평준화되었고 특정시도가 독식하던 각종 대회 메달도 이제 골고루 나눠 갖고 있다. <柔道>지는 차례로 각 지방 유도회를 찾아가 그 지역 회장을 인터뷰하고 지역 팀과 유도장 탐방을 통해 실력 평준화의 실상을 분석해본다.

부산광역시 유도현황

구분	팀	인원(명)
초등학교	6	7
중학교	7	58
고등학교	3	55
대학교	3	20
실업팀	2	13
유도관	39	-

※ 대한유도회 등록 기준

“부산에 유도 열풍이 다시 일어나도록 뛰겠다”

부산광역시유도회 신득성 회장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스포츠도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경기가 읍·면 단위 소도시에서 빈번하게 열리고 지방 팀들의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유도다. 지역별로 뚜렷한 실력편차를 보이던 경기력도 어느 사이 평준화되었고 특정시도가 독식하던 각종 대회 메달도 이제 골고루 나눠 갖고 있다. <유도>지는 차례로 각 지방 유도회를 찾아가 그 지역 회장을 인터뷰하고 지역 팀과 유도장 탐방을 통해 실력 평준화의 실상을 분석해본다.

소통·배려·화합·혁신 공약 결코 취임

부산광역시유도회 신득성 회장(70)은 올해로 부임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신득성 회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부산 유도는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었다. 제대로 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뿐더러 구성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잦았다. 유도계를 떠나 건설업에 종사했던 신 회장은 자신의 고향에서 이 같

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었다. 신득성 회장은 “1978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넘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상대로 유도를 가르치다 99년부터 부임하기 전까지는 건설업에 종사했다. 어느 날 부산으로 건설 현장 시찰을 왔는데, 유도계 후배가 ‘선배님 부산 유도 좀 제발 살려달라’ 애원

을 하더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 유도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빈번했다. 각각 따로 놀더라. 뒤늦게나마 현실을 파악했고 이런 꼴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23년 간 하던 건설업을 접고 유도 행정계에 뛰어들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회장은 소통, 배려, 화합, 혁신 등 4가지 키워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회장에

취임했다. 신 회장은 변화 없이는 미래는 없다며 조직 구조를 확 뜯어고쳤다. 먼저 기존 건설업의 강점을 살려 협회 사무실을 재배치했고, 부산시 소속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유도장 시설도 개보수했다.

또 한 가지 신 회장이 부산시유도회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향상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도자들에게 연 5회에 걸쳐 카타(KATA) 2급 심판지도자 강습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 유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카타 연수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겠다는 의도였다. 회장이라고 해서 뒷집지고 빠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회장직을 떠나 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들과 함께 카타 연수를 이수하는 등 부산시 유도인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했다.

신득성 회장은 “소통, 배려, 화합, 혁신 이 4가지 키워드를 결국 요약하면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다. 우리 협회 소속 선수와 구성원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또 다른 지역 엘리트 지도자들을 보면 유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본 연습을 소홀이 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본 연습을 소홀이 하다 보면 기술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습을 바꾸기 위해 엘리트 지도자들도 스스로 소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카타 연수 등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부임한 이후로 혼란에 빠졌던 부산시 유도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제부터는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문제들을 풀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협



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안에 부산 유도의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원 사업이 있다고 했다. 바로 엘리트 선수 육성이다. 과거 유도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한 부산이었지만, 지금은 선수 수급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부산 유도 재건 위한 기반 조성”

그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유도는 동아대 출신 경기인들이 주를 이루며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발전 없이 도태되고 있다. 선수들도 타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모든 종목이 그렇듯 유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기반이 잘 갖춰져야 한다. 부산에 현재 12개 엘리트 팀이 있는데, 육성 인프라 시스템 등을 구축해 다시 한번 부산의 유도 열풍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사설 유도관과도 업무 제휴를 맺어 엘리트 체육과 학교 체육, 생활 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반드시 이 같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그는 남은 여성과 열정을 후배들을 위한 봉사에 쏟아 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신 회장은 “나는 천상 유도인이다. 임기가 끝나면 후임 회장이 부산시유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

다. 그리고 나는 회장직 임기가 끝나면 다시 신사범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내가 하던 역할이기도 하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죽는 날까지 후배 양성을 위해 어떤 방면으로든 이 한 몸 불사질러 보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두 개의 의미심장한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유능제강(柔能制剛), 도의상마(道義相磨)라는 무술계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도의상마는 서로 갈고 닦아 바라고자 하는 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람이 되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사자성어인데, 이것이 바로 내 신조이다. 올바른 유도를 통해 참된 무도인의 생을 보내는 것이 나의 최종 꿈이다. 죽는 날까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도인이 되고 싶다.”

신득성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여 동안, 그에게서 누구보다도 유도를 사랑하는 애정이 강하게 느껴졌다. 비록 그는 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유도를 통해 많은 것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목표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신득성 회장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성공할 수도,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 다만 신득성 회장을 필두로 부산시유도회 구성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분서주하며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부산 유도를 점차 바꾸고 있다. 📌

공부 잘하는 유도선수 해동고 유도부



해동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에 자리한 사립학교다. 慈悲(자비), 知己(지기), 實行(실행)이라는 교훈 아래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문학교다. 유도부를 창단한 건 1955년이다. 현재까지 많은 학생 선수와 지역 대표 선수는 물론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했다. 최근에는 남사 대학부 60kg급 김진석(경기대), 강민수(서울대) 등의 인재를 배출했다.

유도 선수 공부까지 신경쓰는 김태윤 감독의 철학

해동고 유도부는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라는 기본방향을 잡되, 유도라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2001년 해동고 코치로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 20년째 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윤 감독은 “해동고 유도부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운동부를 추구한다. 우리시의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선수로 자라나 해동인으로서의 위상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교육 철학을 설명했다.

해동고는 한 때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여러



김태윤 감독

차례 할 정도로 유도 명문 학교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몇 년 전 유도의 인기 하락과 타 학교의 선전으로 쇠퇴기를 겪기도 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 학부모들과 코치진이 합심해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한다. 잠시나마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3학년 8명, 2학년 6명, 1학년 7명 총 21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김 감독이 가장 눈여겨보는 선수는 3학년 박영민이다. 박영민은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공부도 전교 1, 2등을 다툰 정도의 재주꾼이다. 박영민에 대해 김 감독은 “1학년때부터 전국 대회 입상을 했고, 대학 진학도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졸업했던 강민수에 이어 또 한 명의 서울대생이 배



출퇴기를 기대해본다”라면서 “이런 선배들을 본보기로 많은 후배들 또한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은 물론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는 학생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태윤 감독의 가장 큰 걱정은 제자들의 졸업 후 진로다. 훈련 이외에도 학생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학생들의 걱정이 곧 자신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김태윤 감독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모두 내새끼 같다. 마음 같아선 모든 제자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해동고 유도부의 전통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윤 감독은 나날이 기량이 느는 선수들을 뿌듯하게 바라본다. 하지만 그는 성적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선수들에게 늘 강조하는 편이다. 인성이 되지 않은 선수는 성적이 좋아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유도인들이 내세우는 철학 중 하나이지만, 김태윤 감독의 유도철학 역시 예시예종이다.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나는 말이다. 김 감독은 “유도는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나는 운동이다. 예의를 갖추고 신체 단련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유도라고 생각한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유도를 잘한다고 해서 건방진거보다 서로 예의 지켜주는게 맞다고 본다. 실력 여

하를 떠나 잘하든 못하든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유도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다”라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해동고의 든든한 버팀목, 정영주 코치

김태윤 감독이 유도부 전체를 총괄한다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는 정영주 코치는 해동고에서 없어서는 안될 든든한 존재다. 전반적인 훈련은 물론 선수단 관리, 팀 사기 증진 등이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김태윤 감독이 아빠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면, 정영주 코치는 동네 형 같은 친근함을 지니고 있다.

2014년에 부임해 7년째 해동고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정영주 코치는 “사실 제가 라이벌 팀인 경남체고 출신인데, 직장은 해동고로 다니게 됐다(웃음).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끔 다독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아이들로 하여금 동네 형처럼 친근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적이 우선이 아닌 운동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잘 갖춰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앞으로 대학 혹은 실업팀에 진출해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 중 다른 분야로 진출해 꿈을 키워나가려 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사회 생활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을 잘 갖춰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해동고 선수들이 말하는 우리 학교 유도부

김선우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1, 2학년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고, 주장으로서도 큰 사고 없이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싶다. 또 유도 선수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초, 중학교 후배들에게도 해동고 하면 오고 싶은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박영민 3학년 고등학교 들어와서 유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서울대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다.

최규준 2학년 열정이 있는 학교 선배들 보면서 맛있는 모습 봐 왔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미래의 일등 선수 최규준이 되겠다.

신정훈 1학년 선후배 간의 의리가 굉장히 두텁고 사이가 좋다. 아직 1학년이라 많이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겠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최종적으로는 경찰이 되고 싶다.

해동고 유도부 부원 명단(총 21명)

3학년	김선우, 변성욱, 김대신, 김지완, 최민수, 박영민, 한동규, 김경민
2학년	최규준, 최현우, 김민기, 홍준선, 박성혁, 김태환
1학년	이상윤, 한동아, 김민규, 유선주, 최현태, 신정훈, 박성수



‘나이, 직업’ 불문, 열정으로 한 데 뭉쳤다

부산 김사부 유도관

김민기 관장(51)은 2018년 10월 김사부유도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도관을 다시 열었다. 김사부유도관은 2년6개월 만에 부산 금정·동래 지역을 대표하는 유도관으로 자리잡았다. 이 유도관은 대학가에 위치한 특성상 다른 유도관에 비해 대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전문에서 언급했듯 김사부 유도관의 관장은 김민기 관장이다. 경남상고 출신의 김민기 관장은 1994년, 군 제대 후 학업을 포기하고 유도관 사업에 뛰어들었다. 젊은 패기를 앞세워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일찍이 문을 닫아야했다. 김민기 관장은 “그 때는 어린 마음에 멋도 모르고 도전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아는 것도 없었고 환경도 열악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때 저한테 배운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도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결국 얼마 못가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아내의 말 한마디, 다시 유도 열정 끓어오르게 해

유도관 사업을 포기하고 헬스클럽으로 업종을 변경한 김 관장은 다행히 헬스클럽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아내 이희라 씨의 말 한마디가 그의 유도 열정을 다시 끓어오르게 했다. 김 관장은 “생활이 그래도 나름 여유가 생겼을 때인데, 그 때 아내가 실패했던 유도관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게는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도 유도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고민이 많았다. 고민 끝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고, 유도관을 재개관하게 됐다”고 웃어

보였다.

아내 이희라 씨는 유도인 출신은 아니지만 남편이 유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뒷바라지했다. 김 관장은 김사부유도관이 불과 3년 만에 3호관을 개관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힘이 컸다고 말한다. 김 관장은 “아내는 은인이나 다름 없다. 아내의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유도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잠시 꺼졌던 유도 열정도 다시 끓어오를 수 있었다. 또, 아내가 유도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 관원들을 가르치겠다며 카타(KATA) 지도자 연수를 수강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것 말고도 유도관을 처음 개관할 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신경써줬다. 아내에 대한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도로 이어진 끈끈한 정

김사부유도관의 관원 중 70%가 대학생들이다. 인근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도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덕분에 체육관 분위기는 젊은 활기가 넘쳤다. 이러한 에너지는 나이가 든 관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관원들끼리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됐다.

김민기 관장은 김사부유도관의 가장 큰 강점은 관원들 간의 결속력이라고 자랑했다. 김 관장은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유도관을 다니는 관원들에게 고마움이 많다고 하며 <柔道>지에게 꼭 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유도관은 성인부 관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해주고 있다. 보통 다른 데의 경우,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유도관은 대학생들을 필두로 젊은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그 기운이 장년층, 노년층 관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특별히 내가 말을 안 해도 관원 분들께서 알아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을 텐데, 군말 없이 끝까지



지 따라와줘서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사범과 관원의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됐다”라고 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사부유도관이 꿈꾸는 유도관은 무엇일까. 김 관장은 “지금처럼 유도를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김민기 관장은 “초등부 인력을 더 키워 좋은 제자들을 양성해보고 싶다. 또 지금보다 유단자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싶다. 변치 않는 열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김사부하겠다”라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



김사부 유도관원들의 이야기

정재훈

지금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관장님으로부터 유도를 배웠다. 잠시 유도관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실 때도 관장님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그러던 중 유도관을 재개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쁜지 몰랐다. 관장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관장님은 역시 도복 입은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린다. 지금과 같이 유도에 대한 열정을 변치 않고 10년, 20년 계속해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백진주

대학생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들과 거부감 없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 중심을 김민기 관장님께서 잘 잡아주고 계신다. 관장님과 도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은 그 관계를 넘어서 내게 있어 인생의 멘토,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됐다. 관장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석진

김사부유도관은 모든 관원들이 오래 가는 게 장점이다. 나이 불문하고 관원들 간의 관계가 워낙 끈끈해 그만두는 관원들이 거의 없다. 유도라는 좋은 운동을 매개체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앞으로도 서로 다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천상 유도인입니다

‘여자 유도’의 대모’
서경애 씨를 만나다

무술세계는 예로부터 남초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현장이 거칠고 힘들어 여자는 버티기 어렵다는 편견 탓이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한국에 유도가 보급된 이래 여성으로서 최초로 공인 7단에 합격한 이가 있다. ‘여자 유도’의 대모’라 불리는 서경애 씨(73)가 주인공이다. 갖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평생 유도만 바라보며 살아온 서경애 씨를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만나고 왔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

서경애 씨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는 부산 최초의 여성 유도인이다. 지난 1976년 국내 유도 사상 처음으로 여자심판 자격증을 땀다. 또 국내 유도 사상

여성으로서 최초로 유도 공인 승단 시험 7단에 합격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이 유도 7단이 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서 씨의 유도 인생은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씨가 처음부터 유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배구를 먼저 했다. 그러다 남성여중 2학년 시절, 등하굣길 중 우연히 유도체육관을 지나치다 절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유도인의 모습을 보고 유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한다. 그는 “하얀 도복에 검은 띠를 매고 상대방을 메치는 모습이 큰 환상으로 다가왔다. 그 때 이후로 하던 배구를 접고 바로

유도로 종목을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게됐다”고 유도와의 시작점을 되돌아봤다.

하지만 그의 뜻과는 달리 시작은 결코 쉽지 않은 않았다. 당시 정서상으로 여자가 무술 활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유도관장은 물론 가족들까지 극구 반대하며 그를 말렸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매일 유도관에 가서 청소하는 일을 도맡았다. 그 모습을 본 관장은 소녀 서경애의 유도 열정을 꺾지 못했고, 결국 그의 부모도 마지 못해 허락했다.

그는 “당시 여자 선수는 나밖에 없다 보니 관심의 대상이 됐다. 부모님 반대도 심했다. 한번은 부모님께서 유도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유도관에 찾아와 물을 뿌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또, 부모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유도복을 집 앞 세탁소에 맡겨가며 운동을 하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운동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여자라는 이유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고, 모든 활동을 남학생들과 함께 해야 했기에 제한되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서 선생은 유도를 할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사소한 일은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서경애 씨는 “부끄러움은 잠시 뿐이었다. 유도를 할 수만 있다면 뭐든 이겨낼 각오가 돼 있었다. 다치고 쓰러져도 늘어나는 기량에 흡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애시당초 유도부가 있는 동아대 체육학과로 진학을 원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결국 서 씨는 동아대 가정학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학과 학생이었지만 유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매일 학과 수업을 마치고 나면 유도복을 들고 유도부가 있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남학생들과 합숙을 하며 훈련을 했다. 빨래 등 허드렛일 역시 그의 몫이었다. 그는 “부끄러움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바닥부터 시작해 올라가자는 결심이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시기를 딛고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회상한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유도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1976년에는 국내 유도 사상 첫 여성심판 자격증을 취득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 씨는 “이왕 한번 시작한 거 욕심을 갖고 도전하자는 생각이었다. 후배 심판들이 있지만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유도는 삶의 목표, 여생도 유도발전 위해 산다

그는 교수로서 동서대와 부산여대에서 대

유도는 내 삶의 목표와도 같다.
사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도를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몸이 허락하는 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싶다

학생들을 상대로 유도를 가르치기도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유도를 가르치면서 봉사심도 키우게 됐다고 한다. 그는 유도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 장애인단체에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2005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부산시원로체육인회 사무처장과 부산시유도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산 유도 발전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서 씨는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유도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자치위원, 국제영화제 통역 등 유도를 통해서 다양한 일

들을 경험하게 됐다. 굳이 유도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봉사 활동을 통해 주위의 힘든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 씨는 우스갯소리로 “나는 유도와 결혼했다”고 말한다. 고회를 넘어 산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유도에 대한 서 씨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은 듯하다. 그의 바람은 소박하다. 여생이 유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서경애 씨는 “유도는 내 삶의 목표와도 같다. 사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도를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몸이 허락하는 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싶다”면서 “사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왔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들이 성이 아닌 선수로서 기량만 놓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인식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유도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다”라고 강조했다. ㉠



대한유도회 제38대 집행부



박용조 부회장
대창산업 대표이사

- 1954.12.25.
- 용인대학교
- (주)농업회사법인 미르 창업(2016)
용인대 총동문회 강원지역 회장(전)



김동욱 부회장
(주)골든블루 대표이사

- 1971.6.29.
- 연세대학교 대학원
- 부산 차세대기업인클럽 수석 부회장(전)
2007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산업자원부)



옥치일 이사

- 1952.1.2.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대통령 경호실 안전처장(전)
서울특별시유도회 부회장(전)



현석환 이사
여주대 교수

- 1963.3.2.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대학유도연맹 총무이사(전)
경희대학교 감독(전)



김양호 이사
순천시청 여자팀 감독

- 1971.4.27.
- 경기대학교
- 전라남도유도회 전무이사(현)
전남진흥중 감독(전)



최원 이사
KH필룩스 그룹 부사장

- 1973.7.10.
- 조선대학교 대학원
- 광주광역시유도회 전무이사(전)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전)



백락광 부회장
(주)남곡건설 대표이사

- 1957.5.3.
- 영남대학교 대학원
- 구미녹색환경(주) 대표이사(현)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현)



신의식 부회장
(주)필그린엘앤씨 대표

- 1965.1.15.
- 용인대학교
- 용인시체육회 부회장(전)
대한유도회 남북협력교류위원장
(전)



서윤석 이사
인천광역시청 감독

- 1974.2.13.
- 인하대학교
- 한국실업유도연맹 이사(전)
인천송도고 코치(전)



유희권 이사

- 1962.8.2.
- 공주대학교
- 충남유도회 상임부회장(현)
대한장애인협회 부회장(전)



이용호 이사
안산시청 감독

- 1966.4.12.
- 수원대학교 대학원
- 안산시유도회 상임부회장(현)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심판위원장(전)



김광섭 이사
(주)VINE JAPAN 대표이사

- 1981.9.3.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주)하안풍차투어 대표이사(현)
한양대 유도팀 감독(전)



김기석 부회장
(주)석영개발 대표이사

- 1968.7.25.
- 용인대학교
- 용인시체육발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현)
법무부 법사랑 기흥지구 협의회장(현)



선찬종 이사
남양주시청 감독

- 1970.9.6.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한유도회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전)
금곡고등학교 코치(전)



김용하 이사
천안동성중 교사

- 1970.4.28.
- 청주대학교
- 충남유도회 전무이사(현)
대한유도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전)



안현석 이사
한국철도공사 감독

- 1967.5.16.
- 철도고등학교
- 한국철도공사 코치(전)
용산구유도회 고문(전)



이경근 이사
한국마사회 감독

- 1962.11.7.
- 용인대학교 대학원
-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부회장(현)
대한유도회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전)



배형정 이사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사

- 1968.2.10.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이사(전)
서울체고 감독(전)

명단 및 프로필



유국상 이사
해다미 대표

-1961.6.4.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부회장(현)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심의위원(전)



변석휴 이사
제주에이엠씨(주) 대표이사

-1962.7.13.
-용인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부회장(전)
(주)골든비치 사장(전)



황선학 이사
경기일보 문화체육 부국장

-1965.8.2.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한조정협회 이사(전)
한국기자협회 경기일보지회장(전)



김재훈 이사
경기대 남자팀 감독

-1980.3.1.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담지도자(전)
미국유도협회 심판(전)

분과위원장

명단 및 프로필



윤현 심판위원장
용인대 교수

-1966.4.5.
-용인대학교 체육대학원
-대한유도회 이사(전)
한국대학유도연맹 전무이사(전)



조민선 이사
한국체대 교수

-1972.3.21.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여성스포츠회 위원(현)
올림픽아카데미위원회 위원(현)



서영호 이사
대구오성고 교사

-1975.1.5.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대구광역시유도회 전무이사(현)
영남대 감독(전)



이윤환 이사
수원영통중 교장

-1962.12.12.
-한세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
-수원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현)
수원 권선중 감독(전)



조정복 이사
한성유도관 관장

-1971.5.29.
-용인대학교 대학원
-대전광역시유도회 전무이사(현)
대전대성중 감독(전)



정준호 경기위원장
충북도청 감독

-1970.6.8.
-용인대학교 대학원
-충북유도회 부회장(현)
한국실업유도연맹 전무이사(전)



조인철 경기력향상위원장
용인대 교수

-1976.3.4.
-용인대학교 대학원
-남자유도대표팀 감독(전)
대한유도회 남북협력위원장(전)



강형원 승단심의위원장

-1939.6.30.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중고유도연맹 회장(전)
충북유도회 회장(전)



김재호 생활체육위원장
독산유도관 관장

-1971.9.22.
-서남대학교 대학원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전무이사(현)
경운대학교 연구교수(현)



전기영 이사
용인대 교수

-1973.7.11.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제유도연맹 수석심판위원장(현)
대한유도회 국제분과위원장(전)



최창석 이사

-1958.11.24.
-계명대학교 대학원
-한국초중고유도연맹 부회장(현)
덕원고등학교 교사(전)



신득성 행정감사
삼현이앤씨 대표

-1952.6.13.
-용인대학교
-부산광역시유도회 회장(현)
현대공고 감독(전)



구본광 회계감사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

-1964.10.20.
-송실대학교 대학원
-호전실업 사외이사(현)
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전)



선우경 KATA위원장
(주)태흥비엠앤에스 대표이사

-1966.3.16.
-용인대학교 대학원
-서울시장애인유도협회장(현)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현)



현숙희 여성위원장
광영여고 교사

-1973.3.3.
-용인대학교 체육대학원
-대한유도회 심판위원회 간사(전)
서울특별시유도회 이사(전)



조재호 의무위원장
올바른서울병원 대표원장

-1976.3.7.
-서울대학교
-에스병원 관절센터 원장(전)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 팀닥터(전)



최주필 공인심의위원장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1982.8.26.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가위원회 현장상담위원(현)
서울특별시유도회 스포츠공정
위원회 위원장(현)

NEWS IN JUDO

유도 뉴스



제38대 집행부 제1차 이사회



이사 선임패 전달식
왼쪽부터 박용조 부회장, 조용철 회장, 신익식 부회장, 김기석 부회장

제38대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제38대 집행부 첫 이사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HJ컨벤션센터 강동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용철 제38대 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이사회에는 새로 선임된 29명의 이사 중 25명이 참석했으며, 보고사항으로 제38대 임원 선임 보고, 2021 타슈켄트 그랜드슬램 파견 결과 보고, 기타사업 보고 있었고, 심의사항으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의 건, 고문 변호사 선임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분과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의 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29명의 위원을 선임키로 하였고, 고문 변호사 선임의 건은 협회의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위해 김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길')를 고문 변호사로 선임키로 하였다. 이날 이사회가 끝난 후 제38대 집행부 이사에 대한 선임패 전달식이 열렸다.

2021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19명의 대의원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으로 제38대 회장 선거 결과 보고, 각종 규정 개정 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감사보고가 있었고, 심의사항으로 정관 개정 심의의 건, 2020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제38대 임원 선임의 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 베트남 한인유도회 가입 승인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정관 개정 심의의 건, 2020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재 베트남 한인유도회 가입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감사 2인을 제외한 제38대 임원 선임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하였다. 한편, 2년 임기의 감사에는 행정감사에 신득성 부산광역시유도회 회장이, 회계감사에 구본광 대주회계법인 회계사가 선임되었다.



송대남 감독, 남자대표팀 코치로 선임

송대남 KH필룩스 유도단 감독이 1월 29일부로 남자대표팀 코치로 선임됐다. 송대남 코치는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90kg이하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중국 국가대표 총감독과 한국 남자대표팀 코치, 남양주시청 코치를 역임했다.

제37대 집행부 제13차 이사회 개최

제37대 집행부 마지막 이사회인 제13차 이사회가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됐다. 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는 21명의 이사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 선거 결과, 2021 IJF 마스터스 파견 결과,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 남자대표팀 지도자 채용의 건,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의견,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2020년도 사업 및 결산(안) 심의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20년도 사업 및 결산 상정안은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송대남 KH그룹 유도단 감독을 남자대표팀 코치로 선임키로 하였고, 각종 증명서의 우편 발송료를 1,000원 인상키로 하였다. 한편, 2021년 본회 예산은 지난 해 사용하지 못했던 올림픽 파견에 따른 대표팀 훈련비와 국제대회 파견비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2억여 원증가한 59억 5천여만원으로 확정되었다.

NEWS IN JUDO

유도 뉴스

2020년도 후보선수 이하 우수선수 비대면 훈련 실시

2020년도 후보선수 이하 우수선수 비대면 훈련이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택 및 각 소속 훈련장에서 Zoom을 통한 이론 교육과 개인별 훈련일지와 사진을 통한 비대면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후보선수 참가자 명단		청소년대표 참가자 명단		꿈나무선수 참가자 명단				
지도자(5명)	김헌태(전임지도자), 김재훈(경기대 감독), 임광영(송도고 감독), 홍승한(한국체대 코치), 김주연(선문대 감독)	지도자(5명)	최승엽(전담지도자), 양원준(외산중 코치), 양성우(대전대성중 코치), 정다운(진주여중 코치), 박종원(경기체중 코치)	지도자(7명)	임희대(전담지도자), 최동규(영천동부초 코치), 홍다미(동남초 코치), 최수진(철원초 코치), 권성훈(신흥초 코치), 박민영(서울송중초 코치), 원찬준(대남초 코치)			
남자 선수 (24명)	-55kg	두민재(보성고), 김승현(용인대), 김용신(주문진고)	남자 선수 (18명)	-45kg	윤주승(부평서중)	남자 선수 (21명)	-36kg	조현우(영천동부초), 김도형(영천동부초), 김민식(철원초)
	-60kg	김태윤(보성고), 하정우(용인대), 이민석(위덕대)	-48kg	김도윤(선린중), 은지원(부평서중)	-42kg		백승재(서울송중초), 전민형(신철원초), 엄정현(천동초)	
	-66kg	배동현(한국체대), 최낙일(한국체대), 박찬우(한국체대)	-51kg	오상우(제주사대중), 김재훈(원광중)	-48kg		전민성(신철원초), 고은찬(동남초), 김용빈(가남초)	
	-73kg	김태모(한국체대), 이은결(용인대), 배성민(원광고)	-55kg	이선준(대전대성중), 정성훈(전북중)	-54kg		김상규(대구남산초), 박준경(신정초), 이지훈(양학초)	
	-81kg	전홍민(서울체고), 김문수(서울체고), 이준환(경민고), 이재묵(용인대)	-60kg	황보재훈(계성중), 박은상(통영중앙중)	-60kg		김우진(봉황초), 최종원(비봉초)	
	-90kg	여예준(한국체대), 김재민(용인대), 정범석(우석고)	-66kg	류의건(삼정중), 김민준(계성중)	-66kg		심재윤(대남초), 윤지훈(인천삼산초), 김경민(인천서흥초), 박성우(철원초)	
	-100kg	서민현(영남대), 김세현(남녕고)	-73kg	박성현(금곡중), 최재민(보성중)	+66kg		이진혁(신재초), 임채민(도천초), 방시후(사북초)	
	+100kg	박경우(한국체대), 김주형(인천체고), 송우혁(용인대)	-81kg	김세림(제주서중), 하준수(보성중)	여자 선수 (17명)	-36kg	박예지(순천신흥초), 이시현(비봉초), 공다민(천동초)	
여자 선수 (24명)	-48kg	김지연(한국체대), 한수영(경기대)	-90kg	엄요학(옥천중), 박민찬(삼정중)		-40kg	박지민(대남초)	
	-52kg	장세윤(서울체고), 안채원(충남체고)	여자 선수 (14명)	-42kg		이아윤(무극중)	-44kg	문지현(동남초), 이시진(신철원초), 이시은(내성초)
	-57kg	박예은(한국체대), 정나리(삼정고), 허슬미(경민IT고), 김예지(도개고), 박나연(경남체고)		-45kg		김도경(경기체중), 김민지(연성중)	-48kg	이채경(서울응암초), 한울겸(신철원초), 이수연(인천서흥초), 권원희(영양초), 진소명(입석초)
	-63kg	김예람(한국체대), 지연주(한국체대), 정승아(경기체고), 제지우(용인대), 신채원(용인대), 김은아(철원여고)		-48kg		황시연(입석중)	-52kg	강나은(서귀포초), 박혜원(금호초)
	-70kg	최임지(한국체대), 안주연(조선대), 김민주(경민IT고), 이예량(창녕고)		-52kg		정수진(입석중), 김예림(위미중)	+52kg	차은서(인천삼산초), 정단비(금호초), 이수빈(봉황초)
	-78kg	김민주(광주체고), 이윤선(경기체고), 고가영(전북여고)		-57kg		남유리(부산체중), 배희진(옥천중)		
	+78kg	간다향(용인대), 박셋별(용인대)		-63kg	고은아(경기체중), 이은별(광문중)			
				-70kg	최재영(신흥중), 김보민(울산스포츠토휘중)			
			+70kg	김하영(남해여중), 이혜빈(경민중)				

2021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1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가 2월 25일, 한국유도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반 심의위원은 대면으로, 2반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총 3,146명이 합격하였다.

승단인원					
7단	7명	4단	46명	2단	671명
6단	5명	3단	112명	소년 2단	99명
5단	33명	소년 3단	8명	초단	1,704명
소년초단 461명					

유도인 경조사 (2021년 1월~5월)

1월 10일	김원진 선수 부친상
2월 14일	문원배 동아시아유도연맹 심판위원장 빙모상
2월 20일	하형주 동아대 교수 장녀 결혼
2월 26일	김건우 하이원유도팀 감독 모친상
2월 27일	오경환 전 대전광역시유도회장 장남 결혼
3월 6일	김낙천 원로(8단) 장녀 결혼
3월 7일	김준환 상임심판 모친상
3월 11일	장경순 전 대한유도회장 부인상
5월 3일	윤익선 전 용인대 교수 별세
5월 12일	백락광 본회 부회장 모친상
5월 22일	김관현 용인대 명예교수 장남 결혼

제25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기간 2021. 4. 17. ~ 19.(3일간) / 장소 경북, 안동체육관

RECORD

종별	체급	1위	2위	3위
남자부	-60kg	김태운(용인대)	두민재(보성고)	김승현(용인대)
	-66kg	안재훈(용인대)	배동현(한국체대)	진선형(보성고)
	-73kg	이은결(용인대)	이승찬(보성고)	김대현(금호공고)
	-81kg	이준환(용인대)	김종훈(용인대)	박준현(보성고)
	-90kg	이남훈(용인대)	박상훈(보성고)	홍의민(한국체대)
	-100kg	여예준(한국체대)	정범석(용인대)	김채욱(용인대)
	+100kg	송우혁(용인대)	조형준(국민대)	서민현(영남대)
				백두산(울산스과고)

종별	체급	1위	2위	3위
여자부	-48kg	김지연(한국체대)	라희원(경기대)	현소정(마산대)
	-52kg	황수련(용인대)	홍채림(마산대)	장세윤(한국체대)
	-57kg	김주희(용인대)	김예지(도개고)	김현아(용인대)
	-63kg	신채원(용인대)	차아리(영선고)	정승아(국민대)
	-70kg	유현지(한국체대)	양지민(광영여고)	정혜민(한국체대)
	-78kg	이윤선(용인대)	김민주(용인대)	김지영(경기체고)
	+78kg	박샛별(용인대)	강윤지(경기대)	이민서(경기체고)
				문다빈(마산대)

제49회 춘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기간 2021. 4.24. ~ 28.(5일간) / 장소 강원, 태백고원실내체육관

RECORD

카타(중등부)

구분	1위	2위	3위
메치기본	잡기: 박용우 받기: 박민선 (선인유도관)	잡기: 이준석 받기: 이승원 (용인대정진유도관)	-

카타(고등부)

구분	1위	2위	3위
메치기본	잡기: 이현석 받기: 오준호 (선인유도관)	잡기: 박현우 받기: 강규민 (용인대정진유도관)	-
굳히기본	잡기: 이태근 받기: 김재진 (독산유도관)	잡기: 김천오 받기: 노지훈 (영통유도관)	잡기: 김환식 받기: 이정학 (바른자세유도관)
부드러운본	잡기: 이수민 받기: 윤정빈 (바른자세유도관)	-	-

종별	체급	1위	2위	3위
여중부	-42kg	주수림(과천중)	박예지(순천신흥중)	김성원(파야널유도멀타짐 용안점)
	-45kg	강여원(신산중)	이유진(안양중)	김예은(중앙중)
	-48kg	김다은(산창여중)	김도경(경기체중)	안호정(개웅중)
	-52kg	송가인(대천리중)	강은비(중앙중)	김지나(남해여중)
	-57kg	김민지(연성중)	정혜원(신산중)	안서연(전북체중)
	-63kg	송다영(도개중)	양지연(신원중)	정예담(부산체중)
	-70kg	김여주(안락중)	최소윤(용운중)	박마리(남해여중)
	+70kg	이현지(제주서중)	허가은(임석중)	우채진(부산체중)
남중부	-45kg	조연우(과천중)	강병민(통영중앙중)	이재혁(보성중)
	-48kg	윤주승(부평서중)	이창학(신철원중)	남준영(상성중)
	-51kg	노태원(부평서중)	강민(도개중)	김두영(대전대성중)
	-55kg	이준현(관산중)	이현빈(관산중)	이재준(신상중)
	-60kg	안현우(통영중앙중)	엄형준(보성중)	박정빈(마천중)
	-66kg	김용민(경민중)	문현석(연성중)	김건우(경기체중)
	-73kg	김홍서(덕원중)	최성준(광문중)	차민호(송도중)
	-81kg	현정우(청주대성중)	허은강(중앙중)	양가은(대전한성유도관)
남고부	-90kg	김선웅(경기체육중)	김재민(태장중)	최성원(덕원중)
	+90kg	김민준(신철원중)	김성훈(계성중)	남경수(도개중)
	-55kg	정기영(경민고)	박민우(울산생활과학고)	최정빈(도개고)
	-60kg	이현승(대성고)	박민택(보성고)	두민재(보성고)
	-66kg	이도협(경민고)	한동규(해동고)	윤현수(경민고)
	-73kg	이승찬(보성고)	박준현(보성고)	김대현(금호공업고)
	-81kg	김선우(해동고)	한성우(보성고)	윤석일(신철원고)
	-90kg	김문수(서울체고)	김건우(경민고)	이재영(보성고)
여고부	-100kg	김동해(금호공고)	한승준(대전체고)	유준(김천중앙고)
	+100kg	장민혁(경민고)	김주형(인천체고)	이태선(충남체고)
	무제한	장민혁(경민고)	백두산(울산스포츠포고학교)	길성준(대전체고)
	-45kg	유예솔(영서고)	권나라(주문진고)	이동주(충남체고)
	-48kg	정수진(대구체고)	한지원(충남체고)	이소정(도개고)
	-52kg	정나리(삼정고)	양지현(도개고)	김성경(광영여고)
	-57kg	김예지(도개고)	김성은(주산산업고)	남유리(부산체고)
	-63kg	차아리(영선고)	김유정(경남체고)	고은아(경기체고)
	-70kg	김민주(경민고)	양지민(광영여고)	김희주(광주체고)
	-78kg	김지영(경기체고)	고가영(전북여고)	최혜빈(영서고)
	+78kg	이혜빈(경민고)	이세은(충북체고)	이민서(경기체고)
	무제한	이혜빈(경민고)	양지민(광영여고)	이세은(충북체고)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기간 2021. 5. 8. ~ 17일(10일간) / 장소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RECORD

종별	체급	1위	2위	3위
13세 이하부 (남자)	-32kg	박동제(가야초)	강민구(동남초)	김호제(비봉초(양구))
	-36kg	조승우(청계초)	김재윤(비봉초(양구))	이도현(영천동부초)
	-42kg	엄정현(대전천동초)	송세현(신금초)	권혁준(철원초)
	-48kg	박선우(중평초)	이휘성(장양초)	김동건(내성초)
	-54kg	허지민(대구산격초)	홍지운(동남초)	강민철(사북초)
	-60kg	전민찬 (과천시실관리공단)	최태영(사북초)	주진혁(대구산격초)
	-66kg	김채윤(포항원동초)	최고성(대남초)	문준서(청계초)
	+66kg	이진혁(신제주초)	김대연(대구태현초)	김민석(영천동부초)
13세 이하부 (여자)	-36kg	이소민(영천동부초)	안혜원(서울송중초)	최민지(동남초)
	-40kg	백서영(서울송중초)	김라임(석수초)	조서희(신철원초)
	-44kg	이다정(석수초)	아하선(가남초)	김도은(도천초)
	-48kg	고다연(인천서흥초)	최지영(금호초)	오다혜(대전천동초)
	-52kg	문지현(남남초)	한서연(인천서흥초)	유예지(철원초)
	+52kg	곽유주(동남초)	이창애(무극초)	정다은(도천초)
	-45kg	조연우(과천중)	조현우(영동중)	김건호(대전대성중)
	-48kg	윤주승(부평서중)	정성일(부평서중)	이현민(영동중)
16세 이하부 (남자)	-51kg	김상엽(연성중)	이태준(무극중)	이은강(보성중)
	-55kg	이준현(관산중)	한채민(원광중)	양인철(원당중)
	-60kg	엄형준(보성중)	이규민(예람중)	최경준(외산중)
	-66kg	김용민(경민중)	김건우(경기체육중)	정택범(안락중)
	-73kg	최성준(광문중)	이도균(후평중)	김준호(신현중)
	-81kg	허은강(중앙중)	허정재(위미중)	양시준(TH용인대 유도체육관)
	-90kg	김경동(신철원중)	장태욱(전북중)	김민수(금호중)
	+90kg	김창민(원광중)	김성훈(계성중)	김능환(안락중)
16세 이하부 (여자)	-42kg	주수림(과천중)	유하늘(북원중)	박예지(순천신흥중)
	-45kg	이유진(안양중)	이은지(예람중)	김예은(중앙중)
	-48kg	신유미(위미중)	백지호(청라중)	정수아(서울체육중)
	-52kg	홍규리 (제주사대부설중)	김지나(남해여중)	강나은(서울체육중)
	-57kg	김민지(연성중)	한율겸(철원여중)	조은미(전북중)
	-63kg	양지연(신원중)	정예담(부산체육중)	박하늘(북원중)
	-70kg	최소윤(용운중)	고은비(경북체육중)	김현진(신현여중)
	+70kg	이현지(제주서중)	김하영(남해여중)	이은고(동지여중)
19세 이하부 (남자)	-55kg	최정빈(도개고)	황해성(보성고)	김대신(해동고)
	-60kg	이현승(대성고)	이태호(대전체고)	양준서(남녕고)
	-66kg	이도협(경민고)	진선영(보성고)	장대환(금호공고)
	-73kg	이승찬(보성고)	김대현(금호공고)	박현빈(남녕고)
	-81kg	박준현(보성고)	한성우(보성고)	김남호(보성고)
	-90kg	김문수(서울체고)	박상훈(보성고)	김건우(보성고)
	-100kg	한승주(대전체고)	박성환(경민고)	김동해(금호공고)
	+100kg	김주형(인천체고)	김민성(경기체고)	장유민(부산체고)

단체전

	체급	1위	2위	3위
	19세 이하부(남자)	경민고(경기)	보성고(서울)	울산스포츠포고(울산)
	19세 이하부(여자)	경기체고(경기)	경남체고(경남)	광영여고(서울)

* 최우수심판상: 정호영(대한유도회 상임심판) / 이소연(대한유도회 상임심판)

* 최우수지도자상: 오승용 (경민고) / 김민수(경기체고)

종별	체급	1위	2위	3위
19세 이하부 (여자)	-45kg	김민주(제주중앙고)	이동주(충남체고)	권나라(주문진고)
	-48kg	김근영(영선고)	이혜원(영선고)	민도아(경북체고)
	-52kg	김민정(서귀포유도관)	김성경(광영여고)	정나리(삼정고)
	-57kg	김예지(도개고)	김지혜(서울체고)	지가현(경기체고)
	-63kg	김유정(경남체고)	차아리(영선고)	김주영 (울산스포츠포고학교)
	-70kg	김민지(남녕고)	안현진(철원여고)	김민주(경민고)
	-78kg	김지영(경기체고)	임한주(전북여고)	정유라 (울산스포츠포고학교)
	+78kg	이혜빈(경민고)	이세은(충북체고)	김태은(경북체고)
남대부	-60kg	김진석(경기대)	조환경(경기대)	박준호(용인대)
	-66kg	홍규민(용인대)	양지혁(용인대)	김용환(용인대)
	-73kg	한재광(용인대)	최훈(용인대)	배성민(경기대)
	-81kg	김종훈(용인대)	이상준(한국체대)	우찬식(용인대)
	-90kg	한주엽(용인대)	이무재(한국체대)	이남훈(용인대)
	-100kg	심재우(용인대)	여예준(한국체대)	정범석(용인대)
	+100kg	이승엽(동의대)	원찬희(경운대)	문규선(경기대)
	-48kg	유우희(용인대)	김지연(한국체대)	이혜인(한국체대)
여대부	-52kg	추희선(용인대)	황수련(용인대)	허승림(용인대)
	-57kg	김주희(용인대)	신유나(용인대)	김현아(용인대)
	-63kg	신채원(용인대)	허슬미(용인대)	정승아(국민대)
	-70kg	윤주희(용인대)	김은솔(경기대)	김유빈(경기대)
	-78kg	김주윤(용인대)	이윤선(용인대)	김민주(용인대)
	+78kg	임보영(용인대)	박샛별(용인대)	김다혜(한국체대)
	-55kg	최인혁 (국군체육부대)	김재현 (제주특별자치도청)	박성영 (부산광역시청)
	-60kg	류승환(KH필룩스)	홍문호(용인시청)	권진택(여주시청)
남 일반부	-66kg	서동규 (제주특별자치도청)	고승조(코레일)	채성희(철원군청)
	-73kg	송민기(양평군청)	임주용(남양주시청)	이준성 (국군체육부대)
	-81kg	홍석웅(용인시청)	전지원(철원군청)	문규준(남양주시청)
	-100kg	원종훈(양평군청)	강대봉(경남도청)	이현웅(하이원유도)
	+100kg	황민호(용인시청)	정지원(양평군청)	강진수 (제주특별자치도청)
	-48kg	이혜경 (광주도시철도공사)	박은이(고창군청)	오연주(동해시청)
	-52kg	하주희(고창군청)	이동현(성동구청)	장예진(동해시청)
	-57kg	박은송(동해시청)	김재령(경남도청)	김미리(부산북구청)
여 일반부	-63kg	권유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주연 (광주도시철도공사)	명지혜(부산북구청)
	-70kg	이예원(고창군청)	박다은(성동구청)	김혜미(순천시청)
	-78kg	송세령(부산북구청)	강경민(동해시청)	문다슬(성동구청)
	+78kg	신지영(순천시청)	이정은 (인천광역시청)	이은주 (제주특별자치도청)
				임다협(고창군청)

2021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1년 2월 25일)

7단	
11969	유 인 기
11970	김 진 성
11971	성 낙 춘
11972	김 영 찬
11973	최 종 득
11974	이 창 현
11975	서 명 근

6단	
13103	이 기 환
13104	황 인 수
13105	김 민 기
13106	위 진 우
13107	한 준 호

5단	
15354	최 주 필
15355	한 형 환
15356	박 경 준
15357	이 영 록
15358	김 대 웅
15359	양 성 운
15360	황 보 인
15361	명 지 혜
15362	박 종 우
15363	이 재 우
15364	이 승 혁
15365	배 준 범
15366	서 광 득
15367	송 수 근
15368	윤 성 배
15369	오 양 근
15370	조 승 현
15371	김 지 언
15372	용 영 중
15373	김 정 훈
15374	김 선 효
15375	김 민 영
15376	최 수 진
15377	김 성 익
15378	김 진 하

4단	
26186	함 용 주
26187	전 용 주
26188	윤 재 훈
26189	원 성 욱

26190	곽 기 철
26191	이용 욱
26192	김 정 관
26193	김 성 기
26194	신 주 석
26195	이 당 행
26196	이 혜 경
26197	정 우 영
26198	강 민 재
26199	고 덕 열
26200	안 세 원
26201	강 나 영
26202	김 도 형
26203	홍 석 웅
26204	이 화 진
26205	전 미 리
26206	한 경 목
26207	김 종 석
26208	박 병 민
26209	남 현 승
26210	박 서 연
26211	심 상 진
26212	민 성 용
26213	유 상 현
26214	양 세 화
26215	김 대 훈
26216	박 보 현
26217	김 동 현
26218	안 상 곤
26219	최 호 정
26220	안 인 구
26221	신 수 정
26222	심 혜 민
26223	이 예 원
26224	양 재 영
26225	남 주 희
26226	김 준 민
26227	백 승 훈
26228	이 종 승
26229	서 진 석
26230	호 정 민
26231	김 경 훈

3단	
43023	정 규 평
43024	김 다 혜
43025	장 윤 진
43026	김 산
43027	윤 진 구
43028	김 수
43029	안 형 준
43030	고 동 훈
43031	정 재 현
43032	윤 태 호
43033	김 병 윤
43034	설 창 운

43035	이 양 우
43036	신 명 재
43037	박 동 제
43038	문 강 혁
43039	정 현 석
43040	이 수 인
43041	강 채 민
43042	심 재 업
43043	김 나 현
43044	김 대 곤
43045	한 재 웅
43046	여 승 원
43047	이 승 호
43048	백 해 원
43049	하 성 현
43050	김 대 신
43051	한 동 규
43052	정 다 운
43053	김 민 배
43054	김 명 환
43055	최 재 웅
43056	조 성 래
43057	홍 예 지
43058	이 성 현
43059	장 범 석
43060	이 우 진
43061	김 주 형
43062	김 동 현
43063	김 민 수
43064	김 현 수
43065	백 지 훈
43066	정 우 진
43067	차 의 현
43068	정 혜 승
43069	정 동 희
43070	박 선 영
43071	박 미 나
43072	김 인 후
43073	김 주 현
43074	염 승 업
43075	장 은 서
43076	김 수 훈
43077	임 성 록
43078	박 희 준
43079	박 희 재
43080	김 동 혁
43081	이 호 성
43082	김 영 민
43083	김 찬 형
43084	최 건 우
43085	조 상 곤
43086	이 찬 실
43087	송 진
43088	임 채 희
43089	유 정 채
43090	박 광 흠

43091	손 성 진
43092	홍 문 호
43093	빈 경 렬
43094	김 진 수
43095	김 태 성
43096	김 태 경
43097	황 보 승
43098	주 성 현
43099	이 지 훈
43100	문 준 현
43101	김 창 기
43102	구 준 현
43103	이 해 성
43104	김 소 리
43105	박 지 성
43106	서 해 진
43107	이 민 재
43108	김 진 휘
43109	이 명 로
43110	이 영 준
43111	박 형 원
43112	이 관 용
43113	감 민 석
43114	장 종 민
43115	김 형 용
43116	정 희 석
43117	이 정 훈
43118	김 동 언
43119	김 예 람
43120	박 종 광
43121	정 용 훈
43122	장 유 경
43123	김 태 원
43124	박 재 성
43125	이 정 대
43126	한 지 오
43127	허 준 혁
43128	박 경 도
43129	박 지 호
43130	손 소 희
43131	남 윤 수
43132	허 정 우
43133	김 상 현

2단	
141374	전 경 태
141375	이 민 준
141376	이 진 수
141377	나 예 빈
141378	김 기 열
141379	채 수 오
141380	김 예 은
141381	허 은 강
141382	김 정 주
141383	박 재 연
141384	이 민 우

141385	선 유 현
141386	장 민 서
141387	이 광 희
141388	홍 순 욱
141389	김 대 웅
141390	김 유 민
141391	변 현 식
141392	유 상 호
141393	신 철
141394	김 범 진
141395	김 홍 수
141396	함 안 선
141397	하 정 현
141398	조 원 진
141399	김 재 민
141400	박 찬 우
141401	장 재 훈
141402	김 지 호
141403	류 한 성
141404	윤 주 혁
141405	장 현 영
141406	정 석 윤
141407	정 재 훈
141408	김 성 진
141409	손 양 권
141410	김 예 진
141411	김 승 찬
141412	조 남 혁
141413	신 혁 진
141414	윤 성 진
141415	박 하 늘
141416	강 나 경
141417	김 수 인
141418	정 승 연
141419	원 영 선
141420	문 재 민
141421	문 종 찬
141422	김 민 서
141423	최 가 은
141424	노 규 리
141425	조 종 현
141426	김 해 빈
141427	홍 성 빈
141428	김 재 업
141429	이 예 정
141430	김 가 영
141431	이 찬
141432	김 정 언
141433	임 시 온
141434	문 경 준
141435	이 상 훈
141436	김 다 빈
141437	권 강 민
141438	김 민 숙
141439	최 다 혜
141440	박 진 웅

141441	홍 지 현
141442	황 선 미
141443	김 요 한
141444	서 건 영
141445	김 성 우
141446	문 석 범
141447	이 슬
141448	양 시 원
141449	엄 희 준
141450	전 정 민
141451	이 호 형
141452	김 민 정
141453	이 재 성
141454	김 주 영
141455	정 진 영
141456	김 주 호
141457	허 문 렬
141458	정 대 니
141459	신 수 아
141460	황 성 문
141461	박 준 하
141462	박 태 정
141463	황 동 현
141464	이 정 효
141465	곽 지 예
141466	김 경 환
141467	김 강 민
141468	한 수 미
141469	정 석 민
141470	최 병 준
141471	정 용 규
141472	우 지 원
141473	손 혁 진
141474	염 도 학
141475	김 윤 모
141476	박 성 빈
141477	김 동 준
141478	전 동 재
141479	박 재 업
141480	이 대 호
141481	조 소 정
141482	윤 다 온
141483	서 예 진
141484	박 진 영
141485	민 지 희
141486	최 라 윤
141487	윤 정 섭
141488	양 현 주
141489	박 한 기
141490	윤 지 예
141491	이 강 인
141492	김 민 찬
141493	신 정 훈
141494	최 현 태
141495	김 민 수
141496	변 재 현

141497	박 일
141498	장 영 준
141499	안 서 빈
141500	송 혜 정
141501	이 수 민
141502	조 주 연
141503	심 준 용
141504	정 현 석
141505	송 상 호
141506	김 지 훈
141507	박 진 형
141508	권 동 연
141509	장 근 우
141510	주 승 권
141511	강 성 빈
141512	권 태 호
141513	권 혁 준
141514	김 두 희
141515	김 승 은
141516	김 영 훈
141517	김 이 준
141518	김 주 원
141519	김 지 상
141520	김 태 섭
141521	이 정 민
141522	이 형 준
141523	장 민
141524	장 지 영
141525	장 혜 연
141526	전 진 우
141527	정 보 건
141528	이 지 원
141529	서 형 우
141530	김 영 수
141531	윤 석 주
141532	전 수 현
141533	배 규 태
141534	김 지 원
141535	유 병 선
141536	박 진 우
141537	박 해 빈
141538	임 효 정
141539	민 선 영
141540	김 수 정
141541	김 현 아
141542	장 수 연
141543	이 수 민
141544	성 지 은
141545	장은 정
141546	임 주 은
141547	오 지 혜
141548	류 아 영
141549	정 민 영
141550	서 지 원
141551	장 해 준
141552	김 경 민

141553	김 수 민
141554	최 윤 영
141555	이 연 주
141556	김 원 지
141557	박 소 연
141558	김 계 립
141559	전 혜 경
141560	황 윤 지
141561	서 혜 리
141562	문 가 영
141563	김 희 재
141564	김 성 주
141565	백 현 진
141566	김 지 연
141567	서 주 현
141568	김 도 훈
141569	우 혜 언
141570	김 민 경
141571	권 진 영
141572	최 성 재
141573	최 성 혁
141574	반 지 성
141575	김 푸 림
141576	이 미 진
141577	김 진 혁
141578	원 혜 진
141579	이 선 아
141580	도 우 진
141581	김 현 우
141582	이 윤 희
141583	윤 민 영
141584	김 민 희
141585	김 찬 익
141586	장 영 태
141587	김 도 형
141588	김 광 록
141589	이 승 민
141590	송 정 은
141591	김 현 빈
141592	천 효 은
141593	제갈강윤
141594	문 해 언
141595	문 환 희
141596	김 영 신
141597	정 성 진
141598	한 지 민
141599	곽 영 은
141600	박 하 정
141601	윤 우 미
141602	정 보 현
141603	최 성 배
141604	조 강 현
141605	김 태 영
141606	강 영 택
141607	김 지 유
141608	이 주 연

141609	박 동 근
141610	이 유 립
141611	김 민 기
141612	함 주 연
141613	고 민 재
141614	최 용 록
141615	오 승 훈
141616	이 지 섭
141617	임 지 우
141618	박 기 현
141619	곽 찬 희
141620	전 진 영
141621	현 민 욱
141622	김 태 준
141623	김 범 진
141624	박 정 빈
141625	윤 성 은
141626	이 해 빈
141627	유 재 익
141628	장 준 호
141629	박 강 현
141630	정 주 혁
141631	정 태 서
141632	이 성 환
141633	이 진 석
141634	양 형 진
141635	노 영 현
141636	백 지 은
141637	최 하 준
141638	신 동 호
141639	김 홍 준
141640	김 대 현
141641	김 속 화
141642	박 진 우
141643	김 세 윤
141644	송 지 현
141645	박 건 우
141646	배 규 영
141647	박 예 린
141648	김 가 은
141649	신 수 진
141650	고 동 준
141651	오 세 정
141652	김 종 환
141653	김 현 호
141654	박 준 영
141655	오 종 훈
141656	은 희 창
141657	윤 가 은
141658	고 문 성
141659	김 성 윤
141660	김 용 석
141661	강 민 기
141662	정 진 우
141663	양 승 윤
141664	강 종 연

주 민	141609
윤 영	141610
연 주	141611
원 지	141612
소 연	141613
계 림	141614
해 경	141615
윤 지	141616
혜 리	141617
가 영	141618
희 재	141619
성 주	141620
현 진	141621
지 연	141622
주 현	141623
도 훈	141624
혜 언	141625
민 경	141626
진 영	141627
성 재	141628
성 혁	141629
지 성	141630
푸 림	141631
미 진	141632
진 혁	141633
해 진	141634
선 아	141635
우 진	141636
현 우	141637
윤 희	141638
민 영	141639
민 희	141640
찬 희	141641
영 태	141642
도 형	141643
광 록	141644
승 민	141645
정은	141646
현 빈	141647
효 은	141648
갈강윤	141649
혜 언	141650
환 희	141651
영 신	141652
성 진	141653
지 민	141654
영 은	141655
하 정	141656
우 미	141657
보 현	141658
성 배	141659
강 현	141660
태 영	141661
영 택	141662
지 유	141663
주 연	141664

2021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1년 2월 25일)

141833	정 현 수	141888	김 정 원	141943	김 가 영	141998	강 정 용	1125	정 성 윤	7043	박 지 민
141834	고 준 석	141889	조 동 근	141944	장 효 수	141999	박 여 명			7044	백 지 호
141835	강 동 원	141890	윤 이 지	141945	노 현 원	142000	정 찬 솔			7045	성 예 준
141836	김 송 현	141891	김 이 린	141946	장 윤 호	142001	배 용 주	6991	김 지 아	7046	안 진 성
141837	김 영 웅	141892	노 우 석	141947	안 기 정	142002	전 주 영	6992	최 승 민	7047	전 태 한
141838	김 정 현	141893	서 유 진	141948	전 영 욱	142003	한 지 선	6993	김 건 하	7048	김 덕 수
141839	김 현 수	141894	한 승 주	141949	오 정 민	142004	송 우 림	6994	최 하 람	7049	이 유 찬
141840	임 종 현	141895	이 의 나	141950	이 현 아	142005	정 태 식	6995	김 희 찬	7050	최 우 진
141841	장 병 준	141896	방 현 서	141951	한 상 훈	142006	황 환 태	6996	윤 지 희	7051	김 현 성
141842	채 건 주	141897	이 영 주	141952	윤 찬 호	142007	한 덕 상	6997	옥 태 형	7052	이 지 홍
141843	한 증 현	141898	윤 준 수	141953	김 초 이	142008	강 문 준	6998	한 준 우	7053	서 민 웅
141844	남 현 성	141899	임 선 아	141954	조 용 준	142009	허 대 권	6999	김 다 미	7054	김 준 영
141845	최 용 후	141900	백 다 정	141955	김 지 운	142010	유 정 환	7000	정 보 윤	7055	전 진 석
141846	김 원 우	141901	강 수 빈	141956	고 나 현	142011	이 건 희	7001	이 윤 서	7056	유 준 성
141847	김 건 휘	141902	김 하 림	141957	윤 혜 영	142012	김 병 훈	7002	신 진 욱	7057	김 민 재
141848	강 신 혜	141903	이 효 주	141958	손 지 원	142013	박 현 준	7003	문 주 원	7058	김 준 석
141849	박 은 희	141904	김 영 은	141959	김 진 현	142014	정 용 빈	7004	유 시 현	7059	임 동 혁
141850	김 동 민	141905	오 종 찬	141960	최 판 근	142015	김 선 홍	7005	정 유 한	7060	전 우 진
141851	이 건 주	141906	강 찬 우	141961	문 바 솔	142016	최 동 현	7006	정 원 준	7061	임 승 재
141852	김 원 정	141907	이 민 규	141962	권 소 원	142017	맹 진 혁	7007	박 문 갑	7062	김 종 안
141853	김 도 연	141908	송 국 희	141963	이 아 름	142018	이 재 현	7008	윤 채 원	7063	신 지 호
141854	이 현 귀	141909	임 주 은	141964	문 성 수	142019	권 준 섭	7009	윤 지 환	7064	김 민 기
141855	정 혜 린	141910	박 진 수	141965	김 경 원	142020	이 유 민	7010	배 준 혁	7065	서 민 준
141856	이 병 규	141911	최 준 호	141966	정 태 현	142021	노 동 혁	7011	박 규 민	7066	채 동 훈
141857	심 채 원	141912	김 동 현	141967	김 재 준	142022	김 호 진	7012	공 나 연	7067	박 민 건
141858	강 현 구	141913	이 수 빈	141968	배 민 성	142023	강 정 우	7013	최 보 근	7068	김 윤 성
141859	김 선 미	141914	배 수 혁	141969	이 지 성	142024	장 민 지	7014	하 태 정	7069	김 성 윤
141860	전 용 배	141915	한 성 우	141970	하 주 비	142025	오 금 희	7015	이 동 준	7070	곽 다 현
141861	김 명 규	141916	심 태 형	141971	김 민 서	142026	최 예 나	7016	옥 지 훈	7071	하 채 무
141862	현 정 섭	141917	최 은 결	141972	김 귀 자	142027	이 진 우	7017	김 이 완	7072	윤 예 준
141863	서 현 교	141918	김 수 연	141973	박 현 민	142028	정 수 빈	7018	이 윤 성	7073	김 영 훈
141864	김 관 희	141919	나 영 권	141974	박 신 우	142029	박 성 인	7019	류 태 훈	7074	김 병 주
141865	석 현 구	141920	황 시 온	141975	안 은 찬	142030	강 경 목	7020	김 기 우	7075	조 원 진
141866	명 노 진	141921	하 나 연	141976	조 은 정	142031	정 성 호	7021	이 다 현	7076	김 대 욱
141867	김 형 규	141922	윤 선 미	141977	변 동 석	142032	황 정 진	7022	남 가 율	7077	조 원 빈
141868	김 기 돈	141923	이 세 지	141978	강 다 민	142033	박 승 준	7023	장 민 우	7078	이 승 훈
141869	김 창 현	141924	김 보 석	141979	정 승 현	142034	박 선 우	7024	정 현 우	7079	차 다 인
141870	오 정 민	141925	김 지 은	141980	우 은 진	142035	정 신 영	7025	박 상 연	7080	김 태 우
141871	표 수 영	141926	김 태 희	141981	이 승 호	142036	안 성 규	7026	이 원	7081	김 태 형
141872	신 재 용	141927	박 정 빈	141982	정 위 석	142037	박 현 우	7027	강 수 빈	7082	한 준 우
141873	김 유 진	141928	전 진	141983	정 지 영	142038	김 룡 현	7028	김 의 성	7083	이 상 민
141874	이 세 은	141929	조 수 정	141984	박 지 현	142039	송 시 현	7029	강 지 웅	7084	윤 도 원
141875	박 강 현	141930	조 승	141985	오 다 희	142040	김 준 영	7030	최 이 삭	7085	권 원 희
141876	임 현 빈	141931	전 진 욱	141986	박 규 목	142041	김 준 교	7031	김 단 우	7086	김 도 완
141877	최 건 아	141932	임 하 리	141987	박 서 진	142042	신 정 민	7032	정 재 민	7087	김 재 원
141878	연 규 정	141933	소 유 진	141988	박 소 영	142043	이 나 애	7033	김 영 민	7088	강 민 주
141879	이 남 기	141934	김 서 휘	141989	서 예 은			7034	김 도 현	7089	김 관 우
141880	강 다 영	141935	권 려 홀	141990	김 현 지			7035	신 민 솔		
141881	정 혜 린	141936	조 성 윤	141991	김 주 경			7036	엄 윤 상		
141882	김 택 윤	141937	최 승 욱	141992	박 연 수			7037	김 지 현		
141883	임 하 리	141938	송 주 한	141993	이 상 기			7038	이 국 승		
141884	정 효 하	141939	김 가 영	141994	공 승 환			7039	이 재 율		
141885	이 동 민	141940	김 다 림	141995	노 현 종			7040	전 무 겸		
141886	최 민 영	141941	김 예 린	141996	이 훈 승			7041	정 서 준		
141887	이 광 혁	141942	한 주 우	141997	문 예 린			7042	범 시 윤		

소년 3단

1118	김 동 현
1119	노 태 원
1120	김 상 업
1121	김 태 업
1122	유 예 성
1123	김 재 환
1124	김 정 원

소년 2단

6991	김 지 아
6992	최 승 민
6993	김 건 하
6994	최 하 람
6995	김 희 찬
6996	윤 지 희
6997	옥 태 형
6998	한 준 우
6999	김 다 미
7000	정 보 윤
7001	이 윤 서
7002	신 진 욱
7003	문 주 원
7004	유 시 현
7005	정 유 한
7006	정 원 준
7007	박 문 갑
7008	윤 채 원
7009	윤 지 환
7010	배 준 혁
7011	박 규 민
7012	공 나 연
7013	최 보 근
7014	하 태 정
7015	이 동 준
7016	옥 지 훈
7017	김 이 완
7018	이 윤 성
7019	류 태 훈
7020	김 기 우
7021	이 다 현
7022	남 가 율
7023	장 민 우
7024	정 현 우
7025	박 상 연
7026	이 원
7027	강 수 빈
7028	김 의 성
7029	강 지 웅
7030	최 이 삭
7031	김 단 우
7032	정 재 민
7033	김 영 민
7034	김 도 현
7035	신 민 솔
7036	엄 윤 상
7037	김 지 현
7038	이 국 승
7039	이 재 율
7040	전 무 겸
7041	정 서 준
7042	범 시 윤

원큐에 돈이 되는 하나원큐 모바일대출

지금 하나원큐로
같이탈 때

잔액은 모으고! 대출은 같이타고! 하나를 알면 열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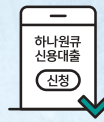
STEP 1

하나원큐
앱 실행



STEP 2

전채 메뉴 > 대출 > 대출상품
> 하나원큐신용대출 상품 확인



STEP 3

한도 조회 및
신청하기



STEP 4

대출한도 확인하고,
[같이타기 금리 및 한도 조회] 클릭!

유도는 하나다! 하나는 유도다!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청회권 및 권리인하요구권 등 자세한 설명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문법감사인 심사필 2020-광고-2113호(2020.04.28) CC보판200424-0129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ADIDAS COMBAT SPORTS KOREA

acskorea.co.kr

ADIDAS JUDO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성우스포츠

010.6474.1372

아디다스 컴бат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타운 4층